

발행처 : 한국혁신센터(KIC)중국  
센터장 : 이상운

전화 : +86-10-6437-7896  
메일 : [info@kicchina.org](mailto:info@kicchina.org)

'주간 중국 창업'의 저작권은 'KIC중국'에 있습니다. 출처 밝혀주시고 무한 활용하십시오.

## 주간 NEWS

- ▶ 요식업 로봇 발표회 (텐센트뉴스腾讯新, 2020.6.24)
- ▶ 전염병하의 영상산업: 만이천삼백개 회사는 작업 재개를 기다릴 여력이 없다는데  
(증권시보证券时报, 2020.6.24)
- ▶ 첫번째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 규범 발표, 7 월 1 일부터 실시 (북경청년보北京青年报, 2020.6.26)
- ▶ 에어비앤비 창립자 말하길, 코로나 후 관광은 지금과 영원히 다를 것  
(신랑과기 新浪科技, 2020.6.24)

## ISSUE 및 시장동향

- ▶ '포스트 코로나시대' 중국소비 완전회복 불확정성 많지만 탄력성도 높아  
— 금융계(金融界) 제공
- ▶ 바이트댄스 기업서비스 제공 첫 걸음 — 투자계(投资界) 제공
- ▶ 이 홈물류 로봇회사는 어떻게 '중국제조'를 대표하고 글로벌 로봇 50 강이 되었을까?  
— 이오왕(亿欧网)제공
- ▶ 양자컴퓨터 시리즈 53) 미국하원 양자컴퓨팅의 전면적이고 심도있는 연구에 권한 부여할 법안 승인 예정 — 헤이구양자(黑谷量子) 제공
- ▶ ICO News Letter by PLAYCOIN 특집 — PLAYCOIN 제공
-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131) — 윤형건 교수 제공

##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 ▶ 대국화된 중국에 일본은 어떻게 마주해야 할 것인가 (동양경제온라인, 2020.6.20)
- ▶ 중국과 일본, 지금 실력을 비교해 보았더니 '일본의 패전'이 보였다... ! (현대비즈니스, 2020.6.23)
- ▶ 슈퍼컴퓨터 성능 랭킹에서 일본이 1위에, TOP500은 '富士 후가꾸'으로 Green500은 'MN-3'  
(MONOist, 2020.6.24)
- ▶ 우주에서도 발발! '중국'VS'미국'패권싸움의 행방 (동양경제온라인, 2020.6.22)
- ▶ 신형코로나 제2파 보다도 무서운 도쿄의 위기 (동양경제온라인, 2020.6.23)
- ▶ 코가시게아끼古賀茂明'경산성 힘쓰는 자들이 나라를 망친다' (주간아사히, 2020.6.23)

## “코로나19 대응” 중국 중앙정부 정책

### ◆ 방역

- ▶ 교육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업무 지도팀 사무실에서 방역 상시화에 학교 체육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지도 의견 (2020.5.20)

### ◆ 금융

- ▶ 2020년 항역특별국채(3기) 발행사업과 관련한 통지 (2020.6.16)

### ◆ 의료

- ▶ 국가 의료 보장국 사무실은 코로나19의 검사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관련 업무 수행에 관한 통지 (2020.6.16)

### ◆ 취업

- ▶ 교육부, 전국 고교-호북고 2기 취업 창업 “일방일(一帮一)” 시행 (2020.5.18)
- ▶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기업의 안정적 일자리 확충하는 정책을 확대 정착시키고 업무로 훈련을 대신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전개 (2020.5.22)

## KIC 중국 NEWS

- ▶ KIC중국, 2020 포스트 코로나 한중대학생 온라인 취업 설명회 성황리 개최 (2020.6.28)

# 주간 NEWS

## 1. 요식업 로봇 발표회 (텐센트뉴스腾讯新, 2020.6.24)



사진 1) 출처: 텐센트뉴스(腾讯新闻)

6월 22일 하지가 하루 지난 날, 광둥 각지에서 연이어 폭서가 발생했고 광저우시에서 차로 한 시간이 채 못 되는 거리에 있는 포산(佛山)은 폭서가 극심하여 최고 기온인 36 도를 넘으며 거리를 지나는 행인은 극히 드물었다. 그러나 이 폭염도 새로 오픈한 이 식당의 인기에는 영향을 주지 못했다.

그날 비과위엔(碧桂园) 산하의 치엔씨(千玺) 음식로봇 그룹(이하 '치엔씨그룹')이 출시한 FOODOM 로봇 식당단지가 광둥 순더(베이자오)난핑로(顺德(北滘)南平路)에서 정식으로 오픈했다.



사진 2) 출처: 텐센트뉴스(腾讯新闻), 식당 오픈식 현장

정오가 넘어 이 회사는 600 명의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큰 홀이 이미 인파로 가득찼다. 전체 식당은 투명한 유리벽으로 분리된 여러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어져 중식, 샐러드, 패스트푸드 3 가지 종류를 포함하고 있었다. 프라이팬에서 무언가를 볶는 로봇, 솥에서 끓이는 로봇, 면 담당 로봇, 커피 담당 로봇,

햄버거 담당 로봇 등 '큰 주방'에서 집단으로 일하며 고객에게 200 개에 가까운 음식을 제공할 수 있으며 가장 빨리 20 초만에 음식을 내올 수 있고, 전 과정에서 종업원과 접촉할 필요가 없다.

20 여년의 발전을 거쳐 비과위엔(碧桂园) 은 현재 이미 부동산+로봇+농업의 3 두마차를 이끄는 비즈니스 국면을 만들었다. 이때 요식업에 진군한 것은 독립적인 발전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장점을 충분히 이용하려는 것이며, 로봇을 통하고, 농업과 연결하고, 부동산 관리와 접목하여 전체 산업사슬을 갖춘 폐순환구조를 만들려는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전체 요식업 산업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도록 기여하려는 것이다.

**25 초면 나오는 한 끼 아침식사**

올해 1 월 광저우에서 첫 번째 로봇 중식당이 오픈한 것과 비교하여 비과위엔(碧桂园)이 이번에 출시한 FOODOM 종합단지의 규모는 더 크고, 업태가 더 풍부하며, 과학기술 함량과 운영효율은 더 높고, 소비자 체험이 더 좋아졌다.

중식을 예로 들면, 전통적인 중식 요리는 요리사가 같지 않기 때문에 요리 솜씨의 차이에 따라 품질이 안정적으로 균일하지 못하기 쉽고, 입맛의 차이에 따라 다른 문제가 있다. 자동화, 표준화된 로봇이 요리하는 제작과정은 인간이 간섭하는 요소를 제거하고, 요리 품질의 균등함을 보장하고, 동시에 생산 효율성도 높인다.

FOODOM 에서 소비자 주문이 떨어진 후 볶음 로봇은 주문에 따라 중앙 주방에서 조미료를 배합하고 미리 설정된 프로세스에 따라 요리를 진행하며, 제작을 완료한 후 배송로봇이 배달하거나 차세대 클라우드 트랙 시스템에 따라 '하늘에서 내려올' 것이다. 고객이 있는 위치로 보내기까지의 전체 과정이 원스톱으로 완성되고 맛도 균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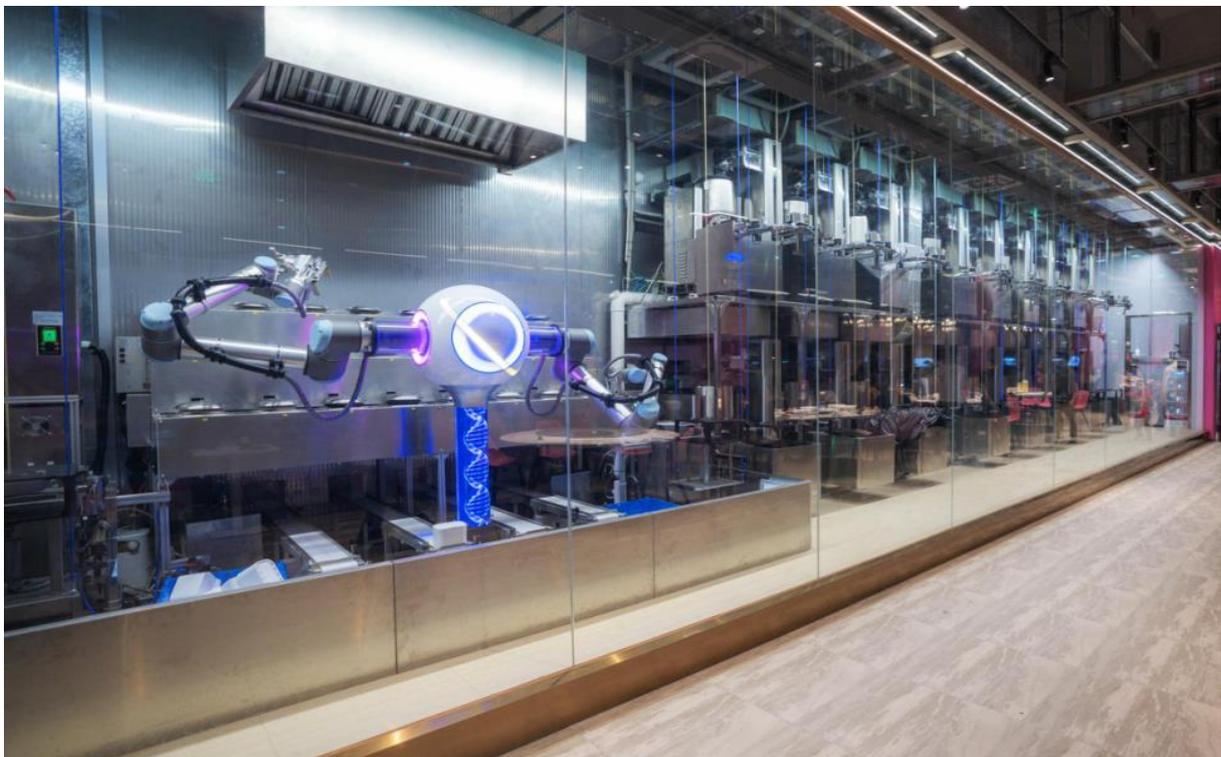


사진 3) 출처: 텐센트뉴스(腾讯新闻), 음식제조로봇이 진열된 모습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단지는 적지 않은 로봇이 처음으로 선보였다.

이중 면로봇이 점유하는 면적은 4m 밖에 되지 않고 요리 과정이 간단하고 고효율이며, 가장 붐비는 시간에 음식을 내오는 효율은 시간당 120 인분을 낼 수 있다. 조찬 로봇은 수많은 식품의 온도와 자동 판매를 구현하며 음식을 내오는데 1인분당 25초의 효율을 지닌다. 커피 로봇은 고객의 요구에 따라 맞춤 제조하고 제조 효율은 1컵당 45초면 된다.

비과위엔(碧桂园) 음식 로봇은 음식을 내는 효율이 높고 배후의 치엔씨그룹(千玺集团)은 효율이 더 높다.

2019년 성립이후 치엔씨그룹(千玺集团)은 연구 개발 제조, 시스템 구축 운영을 쾌속으로 진행하여 1년여 시간만에 이를 실현했다.

고효율의 배후는 비과위엔(碧桂园)이 과학기술에 큰 투입을 한 데 있다.

현재 치엔씨(千玺) 그룹의 핵심 연구개발팀은 300여명에 달하며, 산하의 로봇 전문 연구 과학기술은 이미 80여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누적 통계 500개가 넘는 특허를 신청했다. 현재 이미 햄버거 로봇, 클라우드 트랙 시스템, 샵샤브 배합 로봇 등 60여종 기계의 연구 제작에 성공했다.



사진 4) 출처: 텐센트뉴스(腾讯新闻), 중식 클라우드 트랙

이중 술에서 끓이기와 미니아이스크림 로봇은 이미 대량 생산단계에 들어갔으며 국가로봇검측과 평가센터에서 발급하는 시스템 통합 식사 로봇 CR 증서 (China Robot Certification) 를 획득했다.

국가로봇 검측과 평가센터(본사)기술위원회 주임 정준치(郑军奇)측은 치엔씨(千玺) 그룹이 첫 시스템 통합 음식로봇 CR 증서를 획득한 것이 한편으로는 치엔씨(千玺)의 제품이 디자인이건 안전 규범이건 모두 국가 수준의 인증 요구를 충족시킨 동시에 설비 구매자와 소비자에게 더 많은 신뢰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 식당을 여는 것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요식업 또한 하나의 조급 시장이다.

국가통계국 데이터에 따르면 2019 년 중국의 요식업 산업 수입은 4.67 조 위안으로 전년 대비 9.4 % 증가했다. 전염병 이후 작업과 생산 재개가 질서 정연하게 전개되고 주민의 소비수요가 더 한층 해방됨에 따라 2020년에는 중국 외식 시장 규모가 5 조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낮은 진입장벽, 시장 참여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 해마다 증가하는 인건비는 이 산업에 대한 진정한 묘사다. 경영자의 경우, 인재 부족과 높은 임대료는 양대 산에 고민하며, 이 산업의 이익 공간을 더욱 축소하고 있다. 적지 않은 요식업 회사가 로봇을 전통적인 식당 장면에 사용하려 시도하고 있고 예를 들면 허마셴생(盒马鲜生)과 하이디라오(海底捞)가 그렇다.

그들과 같지 않은 것이 치엔씨(千玺)의 최종 목표는 하나의 외식 브랜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결합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겸한 하나의 과학기술 회사가 되는 것이다.

“치엔씨(千玺)는 로봇을 진입점으로 삼아 선진적인 요식업 서비스 업그레이드 솔루션을 제공하며, 세계 최대의 스마트 요식업 그룹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취우미(邱咪)는 말했다.



사진 5) 출처: 텐센트뉴스(腾讯新闻), 비과위엔(碧桂园) 그룹 총재어시스턴트겸 치엔씨로봇음식그룹 총경리 치우미(邱咪)

치차차(企查查)에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치엔씨(千玺) 그룹 산하의 자회사에는 즈위엔과기(智源科技), 비자순주방(碧家顺厨), 요우비성(优碧胜), 비요우웨이(碧有味) 4 개 회사가 있으며 백엔드 공급망 생산 (중앙 주방), 로봇 생산, 식당 운영, 로봇 기계 설비 운영 등이 있다.

앞으로 치엔씨(千玺) 그룹의 주사업은 주로 3 방면으로 식사 로봇을 설계하여 호텔, 관광지, 병원, 학원가 등 공공구역에 적용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FOODOM 로봇 레스토랑을 오프라인으로 설립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전통 외식 공간을 개조한 토탈 솔루션을 기관과 대기업 식당과 같은 곳에 제공하는 것이다.

개별 기계 설비 측면에서, 중국 시장의 전망은 매우 광범위하다. 치엔잔엔산업연구원(前瞻产业研究院)의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로봇 총판매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2019 년 중국의 로봇 판매량은 약 608 억 위안에 근접했으며, 그 중 산업용 로봇 시장은 약 401 억 위안으로 약 66 %를 차지한다.

즈엔컨설팅(智研咨询)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 년~2020 년까지의 평균 성장률은 20.5 %에 이르렀으며, 중국 로봇 시장의 규모는 2020 년까지 100 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광대한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애쓰고 있는 치엔씨(千玺) 그룹은 올해 약 5000 대의 독립형 로봇을 양산할 것이다. 치엔씨는 이미 6 개의 오프라인 로봇 식당을 개설했으며 현재 로봇 식당과 독립형 장비의 원재료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동관시 마통전(东莞市麻涌镇)에 6 만 평방미터의 중앙 주방을 건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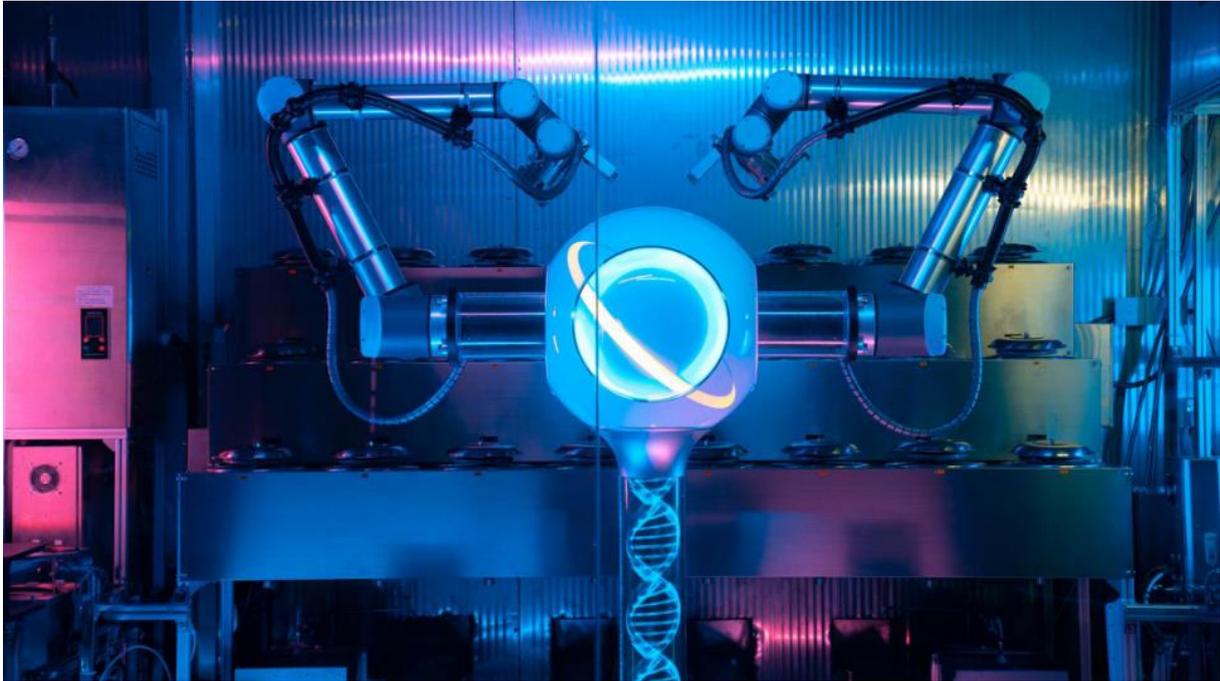


사진 6) 출처: 텐센트뉴스(腾讯新闻), 두 팔 꿀임요리 담당 로봇

"2 년 안에 전국에 5 개의 대형 중앙 주방과 20 개의 위성 주방을 건설할 것입니다. 첫 번째 공장은 이미 순더(顺德)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새로운 공장이 계획되어 있으며 연내 투입 사용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총 20 개가 넘는 생산 라인이 계획되어 있으며 분기별로 투입 사용될 것입니다. 이 때 각종 음식 로봇의 생산 능력이 크게 향상되어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것입니다."라고 치우미(邱咪)는 말했다.

### 로봇을 사용하면 식당은 가장 빠르게 1 개월이면 원금 회수

전체 산업 체인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치엔씨(千玺) 그룹은 개방된 태도를 유지하며 합작 모델에는 연합 경영, 합작 경영, 가맹 등이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치우미(邱咪)는 "우리는 업계의 규범화와 표준화를 리드할 스마트 외식 플랫폼을 구축하기를 희망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창업가와 투자자에게 우리가 탐색한 약간의 경험을 공유하여 그들이 혜택을 보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산업 발전의 배당을 누릴 수 있게 하기를 희망합니다."라고 치우미(邱咪)는 말했다.

투자 회수에 대해 치우미(邱咪)는 음식 로봇 비즈니스 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입증하기 위해 일련의 데이터를 제공했다. "우리가 측정한 결과, 로봇을 도입하면 회사가 단일 장비이든 다른 비즈니스 형식의 매장이든 관계없이 기업의 투입 비용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계산했습니다. 가장 긴 회수 기간은 15 개월이며 가장 짧은 기간은 30 일이면 됩니다. 수익 모델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

치엔씨(千玺) 그룹은 가맹을 개방한 것 외에도 더 많은 응용 시나리오와 기술 경계를 모색하고 있다.

6 월 22 일, 치엔씨(千玺) 그룹과 베이천그룹(北辰集团)은 베이천그룹(北辰集团)의 모든 전시 센터의 스마트 음식 공급에 관한 전면적인 전략적 협력을 시작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베이천그룹(北辰集团)은 중국 복합 부동산의 대표 브랜드이자 중국 전시 산업의 선도 기업으로, 국가회의중심, 베이징국제회의중심 등을 건설 운영을 주도했고, 베이징 올림픽, APEC 리더스 정상회담, 항저우 G20 정상회의 등과 같은 많은 국제 행사를 담당했다.

이외에도 치엔씨(千玺)는 이미 Siemens China 와 기술 측면에서 장기적인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했으며, 양사는 각자 영역의 장점을 활용하고 치엔씨(千玺)가 개발한 음식 로봇 장비 및 소비자 생태를 기반으로 첫 번째 혁신적인 스마트 외식산업 사물 인터넷 플랫폼을 공동 연구 개발할 것이다.



사진 7) 출처: 텐센트뉴스(腾讯新闻), 치엔씨(千玺) 그룹과 시먼즈(西门子) 합작체결식

### 산업 폐순환루프를 만들기 위해 노력

한 부동산 회사로서 비과위엔(碧桂园)의 요식업산업 진출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로봇을 통해, 위로는 농업과 연결하고 아래로는 부동산과 연결하는 등 전산업의 폐순환루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치엔씨(千玺) 그룹은 산업 체인의 프론트 엔드에서 비과위엔(碧桂园)에 축적된 장점을 통합하고 직접 생산하는 방식을 통해 공급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현재 쌀, 가금류, 샤오롱샤(小龙虾) 등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원료 공급 기반을 구축하여 식재료 전체 프로세스를 모니터링 할 수 있으며 추적이 더 정확하다.

치엔씨(千玺) 그룹의 로봇 레스토랑과 독립형 설비는 비과위엔(碧桂园) 커뮤니티, 호텔, 교육, 상업 프로젝트를 포함해 사회 전체에 스마트 음식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요 비즈니스의 협동성과 연동 효율을 높일 수 있다.

비과위엔(碧桂园)그룹 총재 모빈청(莫斌曾)은 생생하게 그리며 설명했다. "만약 주요 사업이 호랑이라면, 새로운 사업은 날개이고, 호랑이에게 날개를 꽂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은 주요 사업에 더 큰 가치를 가져다줄 것입니다."

이 로봇 식당 단지 개업은 비과위엔(碧桂园)이 첨단 과학 기술 분야에 진출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다. 날개는 이미 꽃혔고 사람들을 놀라게 할 비행이 기다리고 있다.

## 2. 전염병하의 영상산업: 만이천삼백개 회사는 작업 재개를 기다릴 여력이 없다는데 (증권시보证券时报, 2020.6.24)

"2020년에는 영화 및 텔레비전 산업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것이 현재 영화 및 텔레비전 산업의 진정한 묘사다.

최근 기자가 여러 극장을 방문하여 여러 영상산업 종사자와 인터뷰한 결과 영화 라인이 잠시 중단되고 대부분의 제작이 중단되고 자금 조달이 더 어려워졌으며 기업이 계속 철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영상 산업 체인은 거의 동결됐다.

업계를 선도하는 영화 및 TV 업계 상장 기업의 상황 역시 낙관적이지 않다. 통계에 따르면, Wind 영상개념주 증시에는 총 30개의 상장 회사가 있으며 2020년 1분기에 손실을 입은 회사가 20개로 거의 70%를 차지했다. 그 중 많은 회사들이 2년 연속으로 돈을 잃었고 올해 1분기에도 계속 적자를 보아 증시에서 퇴출할 압력에 직면해 있다.

곤경에 직면하여, 집과 그림을 팔고, 주식을 재판매하고, 국유 자산을 유입한다... 영상 상장회사의 대주주는 "자구책"을 행동하기 시작했다. 원래는 일을 재개할 것으로 희망했지만, 전염병은 속절없이 반등했다. 전염병에 침체된 영상산업은 어디로 가야 할까?

### 극장은 150 일 이상 중지

올해 초, 갑작스러운 전염병 발생으로 영상산업이 "일시 정지 버튼"을 눌렀으며, 영상산업은 코로나 19 전염병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 중 하나다. 방역 요구 사항에 따라 2020년 1월 24일부터 영화 상영을 철회하거나 시기를 변경했다. 영화관이 문을 닫은지 이미 150 일 이상이 지났으며, 이는 영업 중단 주기가 가장 긴 산업 중 하나다.

기자는 최근 심천과 베이징의 많은 극장을 방문했으며 오프라인 상점이 현재 완전히 폐쇄되었으며 현장에 직원이 남아 있지 않음을 발견했다. 기자는 또한 많은 극장에서 다수의 업무용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전화가 끊겼다"는 소식을 들었다.

반면, 국유 자산의 배경이 있는 극장은 압박이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지만 나날을 보내기는 쉽지 않다. 방역 요구 사항으로 인해 베이징 시단(西单) 지구의 국유 영화관은 영업중지 된 지 거의 반년이 되어 영화관은 저가의 아이스크림과 음식을 파는 것과 같은 일부 '자구책'을 내놓았지만 계란으로 바위치기 식이었다.

테이크 아웃 판매를 담당하는 한 영화관 직원은 기자에게 테이크 아웃 수입이 매우 적으며 영화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집에서 휴가를 보내고 기본 급여만 받습니다. 국유 기업이 아니라면 아마도 이미 폐업했을 겁니다."

최근 베이징 코로나 19 전염병 방역실무팀은 회의에서 집합 장소의 방역 작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으며, 동시에 극장, KTV 등 밀집형 오락장소는 일시적으로 폐쇄하고, 극장 개장은 또다시 재조정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영상업계 "겨울"의 축소판일 뿐이다. 콘텐츠제작 측면부터 배급 이르는 전체 영상산업 체인은 모두 겨울을 느낄 수밖에 없다.

6 월 초, 보나영상그룹(博纳影业集团)은 공식웨이보에서 6 월 10 일 새벽 부총재 겸 영화인 황웨이(黄巍) 향년 52 세의 나이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이것이 업계의 상황과 관련이 있는지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뉴스로 인해 사람들은 극장이 오랫동안 문을 닫은 것에 대한 답답함을 끊고자 시도하게 만들었다. 지아장커(贾樟柯) 감독은 웨이보에서 "업계의 슬픔"이라며 "극장을 재개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전염병은 고난을

영상산업의 "겨울"은 하루 이들의 일이 아니라 2018 년 세무 소란, 스타의 높은 출연료 제한, 시청률 조작, 빈번한 규제 정책, 크레딧 하락, 자본 퇴출 등 일련의 사건이 집중되어 폭발한 것이다. 전염병의 영향으로 2020 년 영상산업은 더 설상가상으로 악화되었다.

츠원미디어(慈文传媒) 부총재 겸 동사장 비서 옌밍(严明)은 기자에게 지난 몇 년 동안 비디오 웹 사이트가 트래픽과 콘텐츠를 두고 경쟁하는 동안 많은 외부 자본 유입이 진입장벽이 낮게 산업에 진입한 많은 회사를 탄생시켰고 영상회사 수량이 폭증했다. 지나치게 분산된 시장 배치는 생산량 초과, 콘텐츠의 심각한 동질성, 낮은 자원 활용 효율 및 모든 과정에서 가격을 올리는 악성 경쟁이 발생했다. 정책과 시장의 이중 통제 하에서 영상산업은 지난 3 년간 지속적으로 조정되어 공급 측면의 개혁과 생산자의 개편을 가속화해야 하며 업계는 고품질을 향해 발전하고 있다.

업계의 심도깊은 조정은 전염병의 영향에 더해 영상회사는 "폐업 조류"를 맞았다. 티엔옌차(天眼查)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 년 (6 월 19 일까지)부터 영상산업에 종사하는 회사 중 1.23 만 개의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회수하여 취소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Wind 영상개념주 증시에는 총 30 개의 상장 회사가 있으며 2020 년 1 사분기에는 적자인 회사가 20 개로 거의 70 %를 차지하고 있다. 그중 Huayi Brothers, 탕더(唐德) Film and Television, \* ST 당대(当代) 등 여러 회사에서 2 년 연속 적자였으며, 올해 1 분기에도 계속 손실을 보았다. 이 의미는 만약 2020 년에도 손실을 이익으로 전환할 수 없다면 위 회사들은 상장 폐지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염병의 도착은 반년 이상 시네마 라인을 멈췄습니다. 수입이 없고 지출 비용도 적지만, 이것이 영상산업의 "겨울"을 유발한 근본 원인은 아닙니다. 영화는 주로 박스 오피스 수익에 의존합니다. 이 단일 수익 모델은 영상 산업을 곤경에 빠트린 원인 중 하나입니다." 중난재경정법대학(中南财经政法大学) 디지털경제연구원 집행원장 판허린(盘和林)은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 나아갈 방향은?

전염병이 영상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거대하지만 잠시다. 단기적으로, 작업과 생산 재개, 정책 지원 등은 영상 산업이 곤경에서 벗어나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게 한다. 단기적으로 영상 산업의 미래 발전 경로는 어디로 향해야 할까?

엔밍(严明)의 견해에 따르면, 영상산업이 한 차례 빠른 속도의 정리와 중앙 집중식 조정을 겪은 후 시장 집중도를 한 단계 높이고, 산업 자원의 통합과 산업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되며 보다 안정적인 산업 기반을 확립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영상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원동력은 사람들의 요구가 좋은 스토리에 대한 갈망이 변치 않고, 엔터테인먼트 소비 요구가 변하지 않으며, 우수한 품질의 콘텐츠에 대한 지불 습관이 양성되는 것입니다."

"향후 몇 년간 정책 측면에 대한 일련의 규제 조치 및 시행 규칙이 집행되고 산업은 안정적이고 표준화된 발전 환경으로 인도될 것입니다. 산업 측면에서 to B 의 헤드 콘텐츠에 대한 가치와 비용이 합리적으로 배치되며, to C 의 재정분리 비즈니스가 이 콘텐츠를 위한 수익 공간을 열어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외, 길고 짧은 비디오 플랫폼의 교차 융합과 5G 기술의 새로운 응용으로 인해 더 많은 형태의 콘텐츠 제품과 IP 파생 산업의 발전이 상당한 시장 확대를 기대하게 합니다."라고 엔밍(严明)은 말했다.

송칭휘(宋清辉)는 기자에게 전염병이 영상 산업, 특히 영상 회사의 극장상영 산업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수많은 중소 영상 기업이 한가닥 숨만 붙어있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산업 재편성을 가속화할 수 있지만, 전체 산업에 나쁜 일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저품질 작품을 남발하던 일부 중소 영상회사는 한데 도산하게 될 것이고 업계에서 고품질의 작품을 생산하게끔 될 것이다. 이러한 고품질 작품이 있는 후에야 영상회사가 나아갈 길은 점점 더 명확해질 것이다.

"전염병이 영상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미래에는 영상회사의 수익 모델이 예를 들면 개인 영화관 등과 같이 소그룹을 위한 형식 등으로 다원화될 것입니다."판허린(潘和林)은 디지털 시대에 영상회사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융합을 강화하고 수익 루트를 확대할 수 있다고 여긴다. 예를 들어 일부 영상회사는 진러토타오(今日头条)와 온라인 합작을 통해 일정한 효과를 거두었다.

### 전향 속도 가속화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다. 전염병은 원래 폭풍우가 치던 영상산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고, 동시에 영상산업의 새로운 생태를 강조하면서 업계가 변화와 업그레이드 속도를 가속화하도록 내몰았다.

"전염병은 영상산업의 원래 작업 리듬을 방해했지만, 전염병 동안의 "재택 경제 "는 고품질 콘텐츠에 대한 사용자의 수요와 소비 잠재력도 보게 했으며 많은 TV 드라마의 시청률이 1 을 넘어섰다. iQIYI, 망고 TV 및 기타 플랫폼에서도 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시스템 다운"현상이 발생했다. 츠원미디어(慈文传媒)의 엔밍(严明)은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5 월 7 일 텐센트비디오, iQiyi, Youku, 정오양광(正午阳光), 화처비디오(华策影视), 닝명영상(柠萌影业), 츠원미디어(慈文传媒), 야오커미디어(耀客传媒), 신리미디어 (新丽传媒) 3 대 영상사이트와 6 개 영상제작사는 공동으로 <단결합심하여 업계 난국을 타개할 자구 행동 결의서>를 발표했다. 9 개 회사가 제창한 영상제작은 40 회를 초과하지 않고 30 회 이내의 창작을 격려하며 양심극, 입소문 좋은 극, 웰메이드극 제작을 지지한다고 했다. '자구'결의서 배후에는 영상제작이 규모 효과에서 품질 추구로 향하는 변혁이 담겨있었다.

다음은 영상 방영 방식의 변혁으로 영화관에서 상영할 수 없던 영화는 온라인으로 전향했으며 영화 방영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는 시대가 되었다.

올해 춘절 "종마(囡妈)"는 토투타오(头条)에서 테스트한 후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방영한 첫번째 극장 영화가 되었다. 3 월 20 일, 토투타오(头条)는 처음으로 네트워크에서 영화 "빅 위너"를 시작했다. 5 월에

영화 "빈 등지"는 짧은 비디오 플랫폼과 협력하기로 결정했으며 10 일 콰이쇼우 플랫폼에서만 독점적으로 방영하기 시작했다.

앞으로 온라인 영화 방영을 우선 협의하지 않는 것은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며, 전염병이 사람들의 생활 습관을 크게 변화시켰으며, "재택 경제"하에서 온라인 방영은 사람들에게 더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른 한편으로, 도인(抖音, 콰이쇼우(快手), 아이치이(爱奇艺) 등 많은 인터넷 플랫폼은 영화를 추가했으며 짧은 비디오 플랫폼도 강력하게 세력을 일으키고 있다.

동시에 적지 않은 영상 상장회사들도 연달아 업계의 "새로운 생태" 배치를 발표했다. 예를 들어 ST 당대 동사장 시량(施亮)은 최근 로드쇼에서 자사가 전액을 투자한 자회사 당따이루지우(当代陆玖)가 현재 도인, 콰이쇼우, 타오바오, 텐센트 등의 플랫폼과 합작하여 고객에게 짧은 비디오 광고 촬영, 정보성 광고 방영, 최적화 등 다원화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길고 짧은 비디오의 교차 융합 발전 추세하에 츠윈미디어(慈文传媒)는 영상의 고품질 콘텐츠에 중점을 두고 C-end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있으며, 더 많은 형태의 콘텐츠 제품 (단편극, 분기극, 미니예능, 인터랙티브형 드라마)을 적극적으로 탐색하며 수익모델을 실현하고, 시장과 이윤 공간을 확대하려 애쓸 것입니다."라고 연밍(严明)은 기자에게 말했다.

Huayi Brothers(华谊兄弟) 동사장 왕중진(王忠军)은 올해 한 차례의 인터뷰에서 온라인 엔터테인먼트에 중점을 두고 온라인으로 극장 영화를 방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Huayi Brothers 는 온라인 콘텐츠 시장을 공격하는 속도가 이전보다 빨라질 수 있으며 오래된 영화 기구의 더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

### 3. 첫번째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 규범 발표, 7월 1일부터 실시

(북경청년보北京青年报, 2020.6.26)

6월 24일, 중국 광고 협회는 라이브방송 전자 상거래의 각종 역할과 행위를 전면적으로 정의하고 규범화하는 최초의 "온라인 라이브방송 마케팅 행동 규범"을 발표했다. 이 <규범>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규범>은 판매사, BJ, 플랫폼 및 기타 참가자 각방의 라이브방송 전자 상거래 활동에서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을 규정했다. <규범>은 라이브방송 전자 상거래는 일종의 새로운 업태이며 소비 확대와 품질 개선을 촉진하고 강력한 내수 시장을 형성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더욱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규정에서, 온라인 방송 마케팅 주체는 주문량 조작, 매출량 과대 조작, 트래픽 조작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교역 데이터와 고객 평가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곡해해서는 안된다. 거짓으로 진행하거나 사람들의 오해를 일으키는 홍보, 사기를 금지한다. 온라인 라이브방송 마케팅 중에 상업광고를 배포할 때는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의 조항을 엄격히 준수해야한다.



사진 1) 출처: 중국청년왕(中国青年网)

라이브방송 마케팅 플랫폼에 입주한 BJ는 실명으로 인증되어야 하며, 프론트 엔드에서 보여지는 별명이나 기타 명칭은 법규 요구 사항에 부합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BJ는 라이브방송 중에 정보가 진실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상품과 서비스를 거짓으로 선전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도하지 않아야 한다. BJ 라이브방송 마케팅 플랫폼 등에서 제공한 마케팅 데이터는 진실해야하고 어떤 형식을 취하건 트래픽 등 수치를 조작하거나 허위구매해서는 안 되고 사후 환불 등의 방식으로 판매자의 수수료를 속여 취해서는 안 된다.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플랫폼은 인터넷 라이브방송 마케팅 활동 중에 라이브방송 기술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의 사회마케팅플랫폼을 뜻하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콘텐츠 플랫폼, 소셜 플랫폼 등을 포함한다. 온라인 라이브 마케팅 플랫폼의 운영자는 플랫폼의 라이브방송 마케팅 콘텐츠에 대한 생태적 검토 및 콘텐츠 보안 처리를 강화하고, BJ의 교육 훈련과 관리를 강화하고, 플랫폼이 금지한 마케팅 행위와 위법, 불량한 정보 처리 시스템을 명확히 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관련 부서의 감독 및 검사에 협력하며 필요한 자료와 데이터를 제공한다.

사용자는 온라인 라이브방송 상호 작용에 참여할 때, 국가 법률 법규와 플랫폼 관리 규범, 교양있는 상호작용, 이성적 표현을 준수해야 하고, 라이브방송 플랫폼을 이용하여 부당한 언론을 발표하고 타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업계는 이 "규범"의 출시가 전체 사회가 하나의 길로 통하는 데 도움이 되고,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 산업의 고품질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소비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더 잘 보장할 것으로 본다.

### 라이브방송 제품판매 문제는 적지 않다

라이브방송 제품판매는 최근 매우 인기가 높다. 베이징시 소비자협회는 베이징 양광소비빅데이터연구원(北京阳光消费大数据研究院)에 라이브방송 제품판매 소비조사를 의뢰했으며 일부 플랫폼 라이브방송 제품판매는 허위 선전, 정보공개 부족과 판매 후 보장이 없는 등 소비자권익을 해치는 문제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라이브방송 제품판매 체험 샘플 30 개 중 9 개 샘플이 증명서 사진 정보 공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었다. 예를 들어, 일부 상점은 판매자 자격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 3 개 샘플은 허위 선전 문제가 의심되었고 선전 상품의 효능 또는 극단적인 표현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했다.

설문 조사 결과, 조사에 응한 소비자는 라이브방송 제품판매에서 비교적 많이 구매하는 상품이 의류 악세서리, 화장품, 식품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2) 출처: Eplusgroup

## 4. 에어비앤비 창립자 말하길, 코로나 후 관광은 지금과 영원히 다를 것

(신라과기 新浪科技, 2020.6.24)

해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에어비앤비 (Airbnb)의 공동 창업자 겸 CEO 브라이언 체스키(Brian Chesky)는 오늘 코로나 19 바이러스 전염병이 현재 관광 산업을 영구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밝히며 주요 관광지에 대한 관광객의 관심이 크게 줄어든 것이라고 했다.

브라이언 체스키는 인터뷰에서 "우리가 아는 관광 산업은 끝났습니다. 물론 이것이 전체 관광 시장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아는 관광은 끝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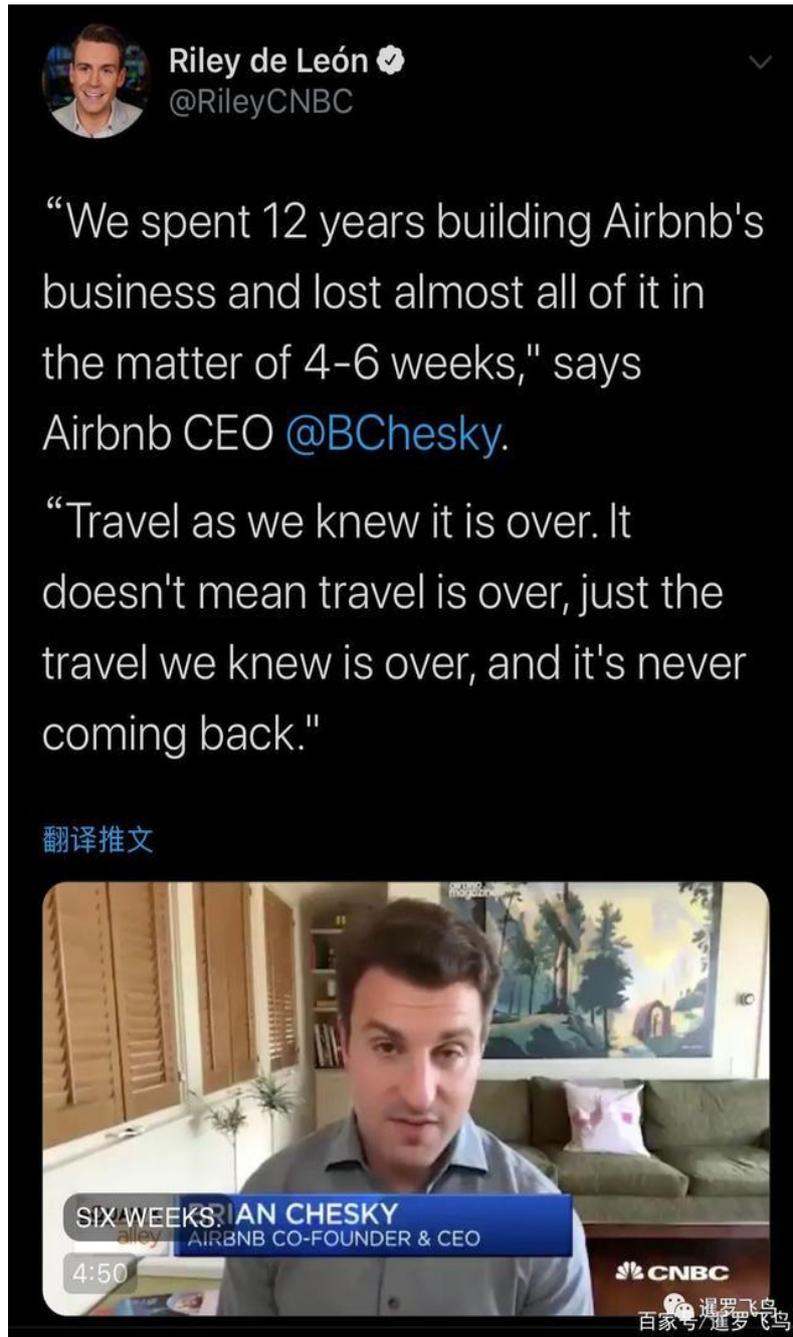


사진 1) 출처: 트위터 @Brian Chesky. 에어 비앤비 CEO 인 Brian Chesky (Brian Chesky)가 미디어 CNBC 기자 Riley 와 한 인터뷰

체스키는 또한 사람들의 여행 위치가 재분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염병이 소멸한 후 주요 관광 도시로 가는 사람들의 횡수가 줄어들 것이며 지명도가 낮은 덜 알려진 목적지로 가기로 결정할 것이라고 여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아무도 그 모습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람들이 현재 잘 알고 있는 소수의 도시로 가지 않고, 몇 개의 큰 관광 지역에 머무르지 않고, 사람들이 여행지점을 새롭게 재분배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동안 에어비앤비의 사업은 심각한 영향을 받았지만, 체스키는 관광 산업은 회복될 것이고 단지 이전과 다른 형태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

"관광 산업이 돌아올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시간은 우리가 생각한 시간보다 오래 걸리고 상황이 다를 것입니다."

체스키는 또한 "집에서 일하는 것은 어느 집에서나 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에어비앤비에게 일종의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인구의 재분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ISSUE 및 시장동향

## 1. '포스트 코로나시대' 중국소비 완전회복 불확정성 많지만 탄력성도 높아

— 금융계(金融界) 제공

전염병의 충격을 받고 소비주는 깊이 하락해버렸고 그 후 대폭 반등했다. 6월 24일 레저 서비스부문은 연중 17% 가까이 상승했고, 상업무역 부문은 연중 14% 상승했으며 농임목어업 부문은 13%이상, 의약 바이오부문은 더 크게 약 37%상승했다.

최근 장청증권(长城证券)의 고정 수익분석 애널리스트 우진두오(吴金铎)가 <국제금융보>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소비회복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해외 전염병 방역 상황이 복잡하여 중국내 부분 지역도 전염병이 재발하여 '일상화된 '내부 방역이 외부 유입으로 반등' 압력이 가해지는 상황에서 소비가 완전히 회복되는 데에는 어느 정도 고충이 따른다. 국가소비능력 상승은 단기의 경우 자극조치 영향을 받고, 중기는 주민의 구매 능력과 지배 수입에 의해 결정되며, 장기는 기술 업그레이드와 교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 중국 국내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여러 조치

3월 27일 중앙정치국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중국내 시장 수요를 가속화하고 주민 소비를 확대하고, 합리적으로 공공소비를 증가할 것을 처음으로 제안했다. 소비 주체에 따라 구분하는데 최종적으로 소비지출은 주민 소비 지출과 정부 소비 지출로 구분된다.

우진두어(吴金铎)는 정부투자와 공공소비 모두 내수 확대의 중요한 수단과 조치라면서 거시적인 통제 수단을 선택할 경우 정부는 일반적으로 삼중 균형을 살펴본다. 만약 공공투자와 공공소비의 비율 균형이 어떠한지, 공공소비와 정부 자체 소비를 어떻게 과학적으로 배분할 것인지, 공공 투자에서 생산형 투자와 소비형 투자의 비율은 얼마인 것이 합리적인지 살펴봐야 한다.

2020년 정부 작업보고서에서는 올해 목표 임무를 제시했는데 완전히 샤오강사회(小康社会)를 만들고, 3대 전투를 잘하고 '6 보장'으로 '6 안정'을 촉진한다는 것이다.

"2020년 GDP 성장 목표를 취소했고 최대 한계 사고에 더 집중했습니다." 우진뒤(吴金铎)는 이와 같이 말하며 일반적으로 정부 투자는 더 직접적으로 효율성있게 쓰이고 공공 소비와 정부 재정의 지불은 사회 공평함을 촉진시키는 데 쓰인다. 후자와 '6 보장'과 빈곤퇴치 정책 목표는 더 잘 배합한다. 다음으로 공공소비는 정부소비가 받는 면적보다 더 크다, 더욱이 정확하게 '6 보장'을 추진하여 사회 공평을 촉진한다. 이에 기반하여 정부 작업 보고서에서는 '재정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기본 민생지출이 증가하기만 하고 감소되지 않는다." "각 급 정부는 반드시 긴박한 나날을 보내야 하며 중앙정부도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중앙 본급 지출은 마이너스 성장을 배치하고 이중 긴급하지 않게 필요로 하는 고정 지출을 50% 이상 줄여야 한다." 정부는 민생과 가깝고 공평한 공공소비를 강조하며 정부소비를 줄이는 것을 보여준다.

양회에서 소비를 촉진하여 민생에 혜택을 줄 것과 구조를 조정하여 뒷심을 증가시키는 '양신일중(两新一重)' 건설을 제기했고, 중점으로 내세운 것은 '차세대 정보망을 발전시키고, 5G 응용을 확장하며 데이터센터를 건설'하는 것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생산성 투자에 속한다: 정부 작업보고서에 나온 오래된 단지를 개조하고, 여행·가사업무·양로를 지원하며 탁아와 건강관리 등 생활 서비스업의 회복 발전을 지원하는 것은 소비형 투자다. 이 양자 모두 효과적인 투자 구성 요소다.

## 소비 완전 회복의 난도가 비교적 크다

우진두어(吴金铎)는 기자에게 솔직히 말했다. “중국 정부 공공소비는 전체 사회 총소비의 30%에 해당하지만 주민 소비가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 소비지수가 좋고 나쁘냐가 직접적으로 사회 소비의 전 국면에 연관됩니다. 그러나 전염병이 일상화되는 방역과 주민 소비 수요의 해방간에는 모순이 존재하며 중국내 전염병이 재발하고 해외 전염병의 복잡함은 소비의 완전한 회복을 비교적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한 편으로는 전염병 방역을 확대하여 공급엔드를 구속시키고 교통 물류 등에 불편함이 더해져, 전염병이 주민 소비를 제한했습니다. 특히 서비스업의 생산과 소비에서 그러합니다.” 우진두어(吴金铎)는 더 나아가 분석했다. 4 월 이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공중 보건 비상 사건에 대한 응급 대응 수준을 지속적으로 낮추었고, 주민 운행이 점차 정상화되어 4 월에는 소비지수가 전년 대비 하락폭이 명확히 줄어들었다. 현재 각 지역에 존재하는 전염병 외부 유입으로 인해 부분적으로는 2 차 폭발이 있다. 전염병의 반복은 선택할 수 있는 소비와 서비스업이 다시금 도전에 직면하게 만든다.

“다른 한 편으로 전염병이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과학적 답변은 아직 없습니다. 백신은 중국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보였지만 임상적으로 완전히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여러가지 불확정성은 사람들의 소비 욕구를 억누르고, 주민들의 미래에 대한 근심까지 더해졌다. 예방성 동기수요가 나와 주민들은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게 될 것”이라고 우진두어(吴金铎)는 말했다.

중앙은행 데이터에는 2020 년 전 5 개월 국내와 외화 저축이 작년 동기보다 84.27 조 위안이 증가했으며 이중 가계저축과 비금융기업의 저축이 작년 동기대비 각각 49.07 조와 23 조 위안이 증가했다고 나왔다. 이와 동시에 전 5 개월간 가정 가계 단기 대출과 소비대출은 작년 동기대비 각각 1.57 조 위안과 4.7 조 위안으로 전염병 하에서 주민들은 보복성 저축이 출현했다.

우진두어(吴金铎)는 말하길 중국주민의 레버리지 비율은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에 있으며, 올해 이후 빠르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중국 사회 과학원의 국가자산부채표 연구 센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2020 년 제 1 분기에 주민 부문의 레버리지 비율은 57.7 %로 작년 말 대비 1.9 % 포인트가 크게 증가했으며 비금융 기업과 정부 부서도 다양한 레버리지 수준을 보였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 부채율과 레버리지 비율이 상승하면 가계 소비와 사회 생산이 억제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우진두어(吴金铎)는 전염병 폭발이후 중국 도시 농촌 주민이 실제 지배할 수 있는 수입은 명확히 하락했다고 했다. 2020 년 제 1 분기 도시 농촌 주민이 균등하게 지배가능한 수입이 1169 만 위안이었고 명의 증가는 0.5% 되었고, 실제 하락은 3.9%였다. 소비는 주민이 지배할 수 있는 수입의 함수다. 주민 수입 일부분은 투자로 사용되고, 일부분은 모기지 또는 기타 필요한 지출을 상환하는데 사용되며, 이 비율이 너무 크면 주민의 소비 지출을 몰아낸다. 올해 1 분기 이후로 주민의 중장기 대출은 작년보다 증가했고, 따라서 주민에 대한 전체 대출 부담이 작년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가처분 소득 감소의 경우, 이것의 의미는 주민들이 소비 지출을 줄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올해 1 사분기 주식 시장의 부 효과로 일부 주민이 주식 시장으로 유입되어 주민이 쓰는 소비 액수가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 온라인 경제소비는 시장의 추세에 역행하여 인기

전염병기간 전자상거래 인터넷 구매, 온라인 서비스 등 산업태가 방역 중 중요한 작용을 발휘했고, 중국의 다년간 ‘인터넷+’경제발전으로 인해 정보와 네트워크 인프라의 앞선 배치로 인해 온라인 신경제는

전염병 기간동안 주민 생활의 정상 운영을 보장했고 전염병도 원격 사무실, 온라인 교육, 온라인 의료 서비스, 온라인 식료품 쇼핑, 개와 산책하기 등과 같은 신소비 모델과 신마케팅 모델을 탄생시켰다.

우진두어(吴金铎)는 온라인 소비가 실물에서 서비스로 확장되었으며 소비 패턴과 소비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라이브방송 제품판매와 같은 마케팅 모델은 소비 잠재력을 더욱 넓히고 소비 공간을 확장했다. 전염병이 이미 3 개월 이상 지속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점차 새로운 소비 모델에 적응했다. 동시에 새로운 소비 모델을 통해 기업은 온라인 고객 확보 기능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온라인 트래픽은 기존 비즈니스의 대체와 갱신을 가져오며 이렇게 선순환된다.

### 기술혁신은 소비 업그레이드 보장

우진두어(吴金铎)는 <국제금융보> 기자에게 "한 국가 소비능력의 상승은 단기적으로는 자극조치 영향을 받고, 중기적으로는 주민의 구매 능력과 지배 수입에 의해 결정되며, 장기적으로는 기술 업그레이드와 교체에 의해 결정된다."고 말했다.

올해 여러 성과 지역에 소비쿠폰을 발급한 방식으로 현지 소비를 진작시켰다. 우진두어(吴金铎)는 이것은 단기적으로 소비 잠재력을 해방시키는데 유리하며, 중기적으로 주민소비는 소비 능력의 제고에 따라 결정되며 소비능력의 제고는 주민 수입과 주민이 획득한 지속할 수 있는 수입 능력에 따라 결정된다고 했다.

우진두어(吴金铎)는 현재 중국은 이미 4 억명의 중등 수입계층이 형성되어 있다면서 어떻게 중등 수입계층을 확대하고 소그룹의 고품질 발전을 강화할 것인가가 지속 가능한 소비 발전 동력을 발휘하는 근본적인 조치라고 했다. 확실히 주민 근로 보수 수입을 높이고, 여러 루트로 이자를 포함해 주택 임대수입, 주식 수익과 배당금 등 재산성 수입을 가져야 한다.

"이외 농민과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 증대 루트를 확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농산물 가격 보호 시스템과 농업 보조금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농민의 전문 기술과 소득 창출 능력을 향상시키며, 농민의 소득을 달성하기 위해 농촌 전자 상거래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동시에 빈곤 인구에 대해 전이성 수입을 증가시켜야 한다." 우진두어(吴金铎)는 기자들에게 "노점상 경제"와 "야간 경제"의 활성화는 적극적으로 제창할 가치가 있는데 GDP 를 창출하기 때문이 아니라 이러한 비공식 경제가 주민들을 위한 소득을 창출할 수 있고 주민의 지속가능한 소비 능력을 높여주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중국 소비의 업그레이드는 기술 교체 지원과 분리할 수 없다. 인터넷의 흥기와 번영은 중국의 온라인 소비를 크게 촉진하고 온라인 소비의 폭을 넓혔다. 중국의 빠른 인프라 발전 덕분에 공급망과 물류가 굴기하고 온라인 소비의 깊이가 더 커졌다. 온라인 결제 발전은 소비 업그레이드에 편리함을 제공한다. 우진두어(吴金铎)는 "따라서 장기적으로 기술 혁신은 소비 상승의 전제와 보장"이라고 말했다.

2020 년에 전국 양회는 "양신일중(两新一重)"을 제창하며, 특히 5G, 산업 인터넷, 스마트 제조 등이 기술 수준에서 소비 업그레이드를 촉진하고, 기술 대체 속도가 어느 정도 소비 업그레이드 프로세스를 결정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소비의 질을 높이고 장인의 정신을 발휘하며 제품을 더 좋게 더 크게 만든다.

우진두어(吴金铎)는 또한 기자들에게 국경간 전자 상거래를 활발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 관광을 발전시키고 특색있는 브랜드의 온오프라인 홍보를 잘 하라고 했다. 총체적으로 말해, 경제 성장의 지속적인 원동력으로 소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돈이 있어 돈을 쓸 수 있고, 돈을 쓸 곳이 있게

하는 것 외에도, 의료, 교육, 양로 등 사회보장 시스템을 더 나아가 개선시켜 주민들이 돈이 있으면 과감히 돈을 쓰게 해야 한다.

## 2. 바이트댄스 기업서비스 제공 첫 걸음 — 투자계(投資界)제공

바이트댄스(ByteDance)는 현재 도인(抖音), 진러투타오(今日头条) 배후의 기술능력을 집대성하여 디지털화 전환기인 기업 시장을 겨냥하여 하나의 플랫폼에서 대외적으로 아웃풋하고 있다.

C 엔드 비즈니스를 핵심 성장의 포인트로 삼은 바이트댄스(ByteDance)는 최근 B 엔드에서도 약간의 움직임을 시작했다. 전염병이 지속되는 기간페이슈(飞书) 기초 버전을 무료로 개방한 후 바이트댄스(ByteDance)는 또 최근 기업서비스 플랫폼 화산엔진(火山引擎)을 출시했다.

화산엔진(火山引擎)은 하나의 기업 서비스 플랫폼으로 디지털화 전환을 하는 기업을 위해 기술 기능을 제공한다. 공식사이트에 열거된 상품을 보면 현재 화산엔진(火山引擎)의 기술 유출은 시각기술, 디지털기술, 멀티미디어기술 위주이며 이중 시각기술 방면에서 주로 스티커 특수효과, 미화필터, 인물 특수효과, 손동작 인터랙티브 등의 상품을 선보이고, 멀티미디어 기술 방면은 주문형 비디오, 라이브방송, 화상회의에 편향되어 있다.

기업고객은 플랫폼상의 기술상품과 솔루션을 골라 사용하며 자신이 처한 기술상의 단점을 보충할 수 있거나 0 부터 시작하여 기술상품과 솔루션을 사용하여 기업을 디지털화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

화산엔진(火山引擎)의 책임자 샤오모(肖默)는 화산엔진(火山引擎)을 출시한 것이 바이트댄스(ByteDance) 서비스가 0 부터 1 까지, 1 에서 N 까지 기능과 도구를 상품화, 서비스화하고, 더 많은 산업과 협력 파트너에게 개방하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러한 거의 모든 산업 모두 디지털화로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입구에서 바이트댄스(ByteDance)의 이러한 동작은 확실히 수요와 맞물린다.

### 기업발전의 '기술능력'은 재정의되고 있다

말할 필요도 없이 거의 모든 스마트폰 사용자 모두 쇼트클립과 라이브방송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 QuestMobile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내 쇼트클립 산업 월활성사용자 규모는 8.2 억을 초과하고 평균 10 개 인터넷 사용자 중 7.2 개가 쇼트클립 상품을 사용하며, 월 한사람당 평균 사용시간은 22 시간을 초과한다. 이중 바이트댄스(ByteDance) 산하의 도인(抖音), 씨과(西瓜)비디오 등 쇼트클립 앱의 사용자 중 중복을 제거한 규모는 이미 5.9 억 명에 달하며 업계의 선두 지위를 점하고 있다.

쇼트클립 대인기의 배후에는 사용자의 주의력과 시간의 투쟁이 있다. 사용자와 시청시간을 확보하는 것, 이것의 의미는 자연스러운 고밀도 정보 전시 필드를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광범위한 비즈니스 기업으로 말하자면 쇼트클립과 라이브방송 플랫폼은 현재 차세대 고객 발굴 루트이며 브랜드 홍보 루트다. 이자치(李佳琪), 웨이야(薇娅) 등 라이브방송 제품판매 달인은 시대의 요구에 따라 생겨났다.

올해 연초의 전염병 상황은 쇼트클립과 라이브방송 산업의 방송 속도를 가속화시켰다. 여행업계가 타격을 입고, 씨트립(携程) CEO 양지엔장(梁建章)이 몸소 현장에 와 라이브방송 상품판매를 했으며, 동밍주(董明珠), 덩래이(丁磊) 등 기업가도 연이어 합류했다. 연예계의 스타들도 이어서 제품판매의 조류에 들어섰고 전국민이 라이브방송하는 시대의 트렌드에 진입했다.

이러한 흐름의 뒤에는 기업 마케팅 능력의 재정의가 있었다. 전통적 기업 발전 능력은 조직관리능력, 재무관리능력, 연구개발생산능력, 마케팅 능력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영상 라이브방송 제품판매의 트렌드 속에서 전통적 마케팅능력은 하룻밤만에 잊혀져버린 듯하다. 의식주와 운행하는 각 산업의 상품 모두 라이브 방송에서 판매되고 심지어 웨이야(薇娅)도 타이바오 라이브방송룸에서 제품판매 APP 을 다운로드한다.

전체 기업 발전 주기에서 보면 마케팅능력만이 아니라 기업의 조직 관리 능력, 재무관리 능력과 연구개발 생산능력도 일찍이 기술화, 디지털화가 시작되었다.

올해 전염병기간 덩딩(钉钉),페이슈(飞书) 등으로 대표되는 SaaS 류 기업 오피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은 신속하게 업계 서클을 파괴했다. 인터넷기업에서부터 나와 아주 많은 전통 기업에게 전통기업이 인터넷 기술에 힘입어 기업의 디지털화 업그레이드를 실현하고 고효율로 조직관리 능력, 운영 능력, 안정적인 업무재개 생산재개를 지속 유지하게 했다.

전통기업 발전에서 우리는 기술 능력을 논의할 때 종종 기업의 연구개발 생산능력, 응용과 상품 사이의 기술실력을 언급한다. 무심코 우리는 우리들이 다시 기업의 '기술능력'을 논의할 때 특히 디지털화 전향중인 기업에서 '기술능력'은 이미 조직, 생산, 경영에서 마케팅 전생명 주기 중의 기초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발견한다.

### 기업이 전임자의 어깨에서 기회를 갖도록

물론 동전에는 양면이 있고 모든 기업이 신속하게 디지털화 전향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 '디지털화 전향'이라는 글자는 6 개 문자에 불과하지만 서로 다른 기업으로서는 서로 다른 난제와 직면해야 한다.

인터넷기업과 달리 많은 전통기업은 인터넷 기술을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국한하여 제품을 판매하거나 기업 공식 사이트를 개발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인터넷기업이 보기에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쉬운 일이며, 디지털화 전환의 입구에 있는 기업으로서는 0 에서 시작하여 첫 걸음을 떼야 하는 것이다.

이 한걸음은 작지만 아주 크기도 하다.

쇼트클립과 라이브방송은 표면상으로 보기에는 매 사람 모두 할 수 있는 일로 보이지만 망망한 라이브방송의 바다에서 두각을 나타내 보이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라이브 방송 산업 발전이 현재에 이르도록 이미 일종의 구비된 성숙한 작업 방식과 방법론의 업태가 형성되어 있어 새로 입문한 자는 확실히 고생하며 탐색할 필요가 없고 선배의 어깨 곁에 설 수 있다.

바이트댄스(ByteDance)가 출시한 화산엔진의 담당자 샤오모(肖默)는 인터뷰에서 현재는 기업이 전임자의 어깨 곁에서 기업이 0 에서 시작하여 구덩이를 밟지 않고 바퀴를 반복하여 굴리는 것을 피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여긴다고 했다.

화산엔진으로 말하자면 개방한 기술능력, 성장 이념, 운영 도구는, 바이트댄스(ByteDance)가 과거 8 년간 성장 중 진러토후타오, 도인, 씨과 등 상품을 통해 쇼트클립, 라이브방송 능력과 같은 것을 한걸음 한걸음 탐색해가며 획득한 것이다.

물론 화산엔진은 쇼트클립과 라이브방송 영역에만 국한하지 않고 더 큰 외연을 갖고 있다, 특히 많은 기저 기술에는 광범위한 비즈니스 응용 장면을 섭렵하고 더 많은 기업이 딛고 설 어깨가 되었다.

예를 들면 화산엔진은 스티커 특수효과, 미화필터, 손작용 식별 등 여러 시각 지능류 상품을 보유하고 이러한 상품은 라이브방송 서비스에만 응용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가구 산업에도 응용되고 있다.

하이얼그룹(海尔集团) 산하의 Leader 냉장고는 화산엔진의 시각지능상품을 이용한 첫번째 고객 중 하나다. 최근 출시한 Leader 인터랙티브 스마트 대형스크린 냉장고에는 화산엔진의 CVSDK 을 응용했고 스마트냉장고 사용자를 위해 자동 얼굴보정 촬영을 제공하며 여러 루트의 도구로 스티커와 스마트필터 렌즈로 사용자에게 주방 장면의 트렌디하고 즐거운 생활체험을 제공하는데 도움을 준다.

따라서 화산엔진 담당자 샤오모(肖默)는 우리는 기업고객을 위해 두 종류 가치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했다. 디지털지능과 체험지능으로 Leader 냉장고는 체험지능에 속하고 화산엔진은 스마트 추천기술, 시각 인터랙티브 기술 응용 등을 포함하여 기업이 더욱 개성화되고 더욱 창의적인 방식으로 고객체험을 제공하길 바란다고 했다.

서로 다른 산업 고객의 체험 지능을 실현하는 것을 돕기 위해 화산엔진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일체화된 솔루션을 출시했으며 쇼트클립, 비디오 상호작용, 스크린 상호작용, 디지털 상호작용과 이미지가속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전통 TV 는 현대가정에서 사용률이 매우 낮아 가구가 되어버렸다. 화산엔진의 대형스크린 인터랙티브 솔루션은 컴퓨터시각기술 업그레이드를 이용하여 스마트 TV 체험을 생활 속에 구현해 가정에 대형스크린이 인터랙티브형 엔터테인먼트의 신체험을 하도록 돕는다.

### 바이트댄스(ByteDance) '기술아웃풋'의 첫 걸음

기업 서비스시장에서 두 종류의 플레이어가 있다. 하나는 창립초기부터 기업서비스를 위해 태어난 것이고 타겟고객층이 기업이며 기업고객 수요를 해결한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용요우(用友), 진디에(金蝶)는 이러한 유형에 속한다.

두번째 플레이어는 특히 인터넷 영역에서 기술 아웃풋효과가 가져온 결과다.

알리바바, 바이트댄스(ByteDance)와 같은 유형은 현재 기업 헤드부의 인터넷 대바이어이며 그 기술 발전 여정은 전형적인 일하면서 경험을 쌓아온 유형이다. 알리바바는 2009 년부터 시작해 클라우드 컴퓨팅영역에 자원을 투입해 5 년후 초보적인 성과를 보았다. 바이트댄스(ByteDance)는 산하 상품의 지능추천기술, 0 에서 1 까지 하나하나 암호를 써내려왔다.

이러한 기업은 초창기부터 유니콘이 되기까지, 다시 글로벌급의 영향력 있는 과학기술 거두가 되기까지 기술능력도 점차 성숙하고 안정적이 되어왔다. 이때 그들은 기술을 개방하기 시작해 기업이 수요로 하는 기술 상품과 솔루션을 형성했고 시장을 향해 고객, 합작파트너가 사용하도록 했다.

디지털경제시대, 기업이 수요로 하는 심도있는 디지털 가치를 발굴하고 데이터구동 비즈니스로 가속 발전을 이루는 것, 이것이 화산엔진의 책임자 샤오모가 말하는 데이터지능이다. 기업고객은 화산엔진을 이용하여 디지털 지능 방면의 데이터 발현자, 데이터 최적화 기술자, DataWind 등 스마트도구 시리즈로 데이터의 발견, 융합, 분석, 최적화 등의 구현과 검증을 할 수 있고 폐순환 루프를 성장시키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수 있다.

이것은 바이트댄스(ByteDance)의 '기술아웃풋'의 제 1 보로, 뒤에는 아직 많은 걸음이 있다. 바이트댄스(ByteDance) 화산엔진 책임자 샤오모(肖默)는 화산엔진이 미래 더 풍부한 제품과 성숙한 기술 서비스를 개방하고 더 많은 산업 솔루션을 포괄하겠다고 말했다.

### 3.이 흠물류 로봇회사는 어떻게 ‘중국제조’를 대표하고 글로벌 로봇 50 강이 되었을까? — 이오왕(亿欧网)제공



사진 1) 출처: 이오왕(亿欧网)

2020년 6월 17일 전세계에서 권위있는 로봇미디어 <로봇비즈니스 평론 (Robotics Business Review, RBR)>이 RBR 리스트를 발표했고 물류로봇기업 지즈지아 (Geek+极智嘉)는 올해 유일하게 리스트에 오른 중국기업이 되었다.

RBR50 리스트는 주목을 받아왔다. 이유는 <로봇비즈니스평론>이 전 한 해의 기업 성과에 기초하여 동태를 조정하고 매년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명단을 발표하여 글로벌 로봇산업의 전체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스마트물류로봇기업 지즈지아 (Geek+极智嘉)는 2019년 RBR TOP50에 재선정된 후 올해해도 유일한 중국기업으로 ‘중국제조’ 로봇영역에서의 최강실력을 대표하였다.

지즈지아(极智嘉) 창립자 정용지엔(郑勇坚)은 물류는 반드시 AI와 로봇기술이 가장 먼저 구현될 중요한 장면이라고 믿으며 Geek+를 포함해 모두가 로봇드림이라는 이 초기의 집념을 줄곧 추구해왔다.

그러면 이 회사는 도대체 어떤 기업인가? 또 우리에게 어떤 기대를 가져올 것인가?

#### 로봇 영역의 ‘중국지능제조’ 최강자

지즈지아과기유한공사(极智嘉科技有限公司 (Geek+))는 2015년 초 성립되어 글로벌 스마트물류번혁을 인도한 스마트로봇기업이며, 로봇과 AI 기술을 이용하여 전품목 물류로봇 상품라인과 솔루션을 제공한다.

글로벌 시장연구기구 Interact Analysis 보고서에 따르면 글로벌 AMR 시장 점유율은 10%를 상회하고 세계 제 1 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지즈지아 Geek+ (极智嘉)는 이미 전세계에 10000 대가 넘는 AMR 로봇을 배치했고, 상업화 실현규모가 업계 선두급이다.

2020 년초 Geek+는 이미 C 라운드 ( C1+C2 ) 용자를 완성했으며 전액 합계는 2 억 달러를 넘는다. 이중 화산석투자(火山石投资), 상평투자(祥峰投资), 화핑캐피탈(华平资本)이 함께 여러 라운드 투자를 진행했고 자본의 인정을 받았다.

 <b>极智嘉 (Geek+) 融资信息</b>			
融资轮次	融资时间	募集资金	投资方
C轮	2020年初	超2亿美元	C1轮: GGV纪源资本、D1领投, 华平资本跟投 C2轮: 云晖资本领投, 鸿为资本、祥峰成长基金跟投
B轮	2017年7月	6000万 美元	华平投资领投, 火山石投资跟投
A+轮	2017年3月	1.5亿元	祥峰投资领投, 火山石投资、高榕资本跟投
A轮	2016年5	5000万元	火山石投资、高榕资本
天使轮	2015年4月	1000万元	心怡物流

표 1) 출처: 이오왕(亿欧网), 지즈지아(极智嘉 Geek+) 용자정보 연혁 (용자라운드차수, 용자시기, 모집자금, 투자사)

Geek+로봇은 이번 전염병 기간, 방역'기병'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고 업무재개가 어려운 고객 비즈니스를 보장해주며 물자수요가 폭증하는 상황 하에서 정상 작동했다. 고객 창고내에서 7x24 시간 고효율로 운행했으며 충전기간 의료와 민생 물자를 300 만 건이 넘게 발송완료했다.

2020 년 6 월 17 일 전세계에서 권위있는 로봇미디어 <로봇비즈니스 평론 ( Robotics Business Review, RBR ) >이 RBR 혁신상 명단을 발표했고 지즈지아(Geek+极智嘉)는 더욱이 올해 유일하게 명단에 오른 중국기업이 되었다.

알려진바와 같이 RBR50 리스트는 글로벌 로봇 산업의 권위있는 상이며 매년 <로봇비즈니스평론>이 비즈니스 유형, 기술혁신, 영향력 등 방면에서 평가하여 선정하는 전세계 로봇산업 50 강이다.

**듀얼엔진: 하드코어 기술+비즈니스 구현**

정용(郑勇)은 Geek+가 글로벌 RBR TOP50 로봇회사의 평가를 획득했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 기반과 비즈니스 구현 두 가지 방면의 혁신과 선도라고 여긴다.

먼저 기술 혁신이다.

Geek+의 핵심관리층에서 창업자 정용(郑勇)과 기타 3인의 공동 창립자는 모두 기술 출신이며 나머지 관리층도 어느 정도 기술 배경과 관련 종사 경력이 있다.

두터운 기술 집적은 Geek+를 글로벌 선두의 AMR 기술을 구비하게 했고 400여개에 육박하는 국내외 특허를 획득하게 했으며 200여건에 가까운 특허수권을 포함하여 로봇성능, 시스템 효율, 알고리즘 등의 방면에서 업계에서 선두적 위치의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현재 지즈지아(极智嘉) 전라인의 로봇 모두 5G를 지원하며 이미 수닝(苏宁) 첫번째 5G 창고내 안착했다.

그러나 정용이 보기에 기술은 그저 한 방면에 불과하며 가장 제품에 구현해야 하는 것은 로봇 솔루션이 진정으로 고객에게 가치를 창조해 주는 것이며 고객의 비즈니스 장면에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거시적 장면에서 보면 Geek+는 공업장면과 창고 장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매우 깊은 산업통찰을 보유하고 있다. 주로 전체 대형 소매창고 솔루션과 큰 공업제조공장의 솔루션을 담당하며 물류, 소매, 제조 등 산업에 신기술을 제공했다.**

Geek+상품 라인은 진열대에서 사람의 선택까지, 화물박스에서 사람의 선택까지 담당하고, 선택 협력, 분배, 운반, 지게차와 스마트창고, 스마트공장 솔루션을 포함한다.



사진 2) 출처: 이오왕(亿欧网)

이중 진열대에서 사람 선택까지 유효한 과정은 인간 노동력을 50~70% 줄여주고, 선정 정확도가 99.99%를 넘으며, 화물박스에서 사람 선택까지 효율은 2~3 배 높아졌고, 분배 효율은 전통적인 사람의 노동력보다 10 배 가까이 효율이 높으며, 지게차 과정은 인력비용을 50~80% 줄여준다.

스마트창고시스템은 고도로 모듈화되었고 선택 시스템, 운반시스템, 분배시스템, 보관시스템을 집성하였고, 작업 효율과 비용 절약을 달성했다. 스마트공장 솔루션안은 혁신적이며 스스로 이동하는 로봇이 전통적인 운송벨트와 레일식 운송 시스템을 대체했으며 일교대 생산 효율을 33~67% 높였다.

**Geek+의 제품이 극대의 화물 운송 효율을 지녔고, 사람 노동력 비용을 절감하며 효과적이며 정확도가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좋은 제품이 있지만 아직 부족하다고 여긴다. Geek+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고객이 모든 스마트공급체인을 진정으로 실현하도록 돕고, 고객이 그 전체 산업에서 위아래 공급체인을 최적화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사실 이 걸음을 어떻게 실현하여 비즈니스 규모화를 달성할 것인지 어떻게 고객이 성공 솔루션을 복제하여 추진하게 도울 것인지가 포함된다.



그림 1) 출처: 이오왕(亿欧网)

현재 Geek+는 이미 4 대주 20 여개 국가와 지역에서 판매, 운영, 서비스하고 있으며 전세계에서 300 개사가 넘는 고객에게 서비스했다. 이중 40 개사 정도가 글로벌 500 강 기업이며 해외 업무가 50%를 넘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사진 3) 출처: 이오왕(亿欧网). 지즈지아(极智嘉)가 일본 현지에서 나이키를 당일 배송하도록 돕고 있는 모습



사진 4) 출처: 이오왕(亿欧网). 선전바오안도서관(深圳宝安图书馆): 전국에서 최초로 로봇도서관 배치 응용



사진 5) 출처: 이오왕(亿欧网). 지즈지아(极智嘉)가 쉬닝이 전과정 무인화 창고운행을 구현하도록 돕는 장면



사진 6) 출처: 이오왕(亿欧网). 디카농(迪卡侬 Decathlon)이 지즈지아(极智嘉) 프로젝트를 글로벌 복제하여 추진하는 모습

그렇다면 어떻게 해외 고객의 신임을 얻었나?

한 방면에서 Geek+는 전세계에 많은 현지화된 팀이 있고 비교적 완벽한 세일즈 후 서비스망을 건립했으며 전세계 각지에 부품센터를 포함하고 있다.

다른 방면에서 2018년 Geek+는 업계내에서 최초로 로봇서비스(Robot-as-a-Service, RaaS)의 상업합작모델을 출시했고 기업이 구매뿐 아니라 단기 임대, 시스템화 운영 또는 원스톱식 스마트 창고 서비스를 선택할 수도 있고, 기업이 로봇 시스템을 배치하는 자금과 능력 진입장벽을 낮춰주었다.

'두가지 방법을 병행'한 것은 Geek+의 로봇솔루션을 시장의 수용도를 점점 더 높여주었고 글로벌 서비스도 상품 솔루션을 복제하여 끊임없이 홍보했다.

종합적으로 Geek+ 제품기술과 상업화 실현은 '두 가지 방법'을 병행했기 때문임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으며, 고속 발전의 원인이기도 하다.

'상장은 우리의 최종 목표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정용(郑勇)의 눈에 Geek+의 최종 목표는 무엇인가?

### 정용(郑勇)의 야심, 상장은 단지 시작점에 불과

그때 <아이언맨>과 같은 과학기술류의 영화가 많았기 때문에 모두 Geek+를 창립하며 로봇 드림의 씨앗을 품었다.

"상장은 아마도 하나의 이정표나 하나의 더 큰 플랫폼을 가질 수 있고, 더 많은 좋은 인재를 유치할 수 있고, 자본시장의 도움을 더 잘 이용해 쾌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더 좋은 시작일 겁니다."

정용은 회사 상장에 대해 충분한 자신감을 갖고 있었으나 동시에 회사 창립자겸 CEO의 상장은 단지 시작점에 불과하다는 야심을 보였다.

그는 Geek+가 '세 개 걸음 걷기' 전략을 유지할 것이라고 하면서 현 단계에서는 물류로봇의 기초에 집중하고, 전체 소프트 자동화솔루션으로 파생하고, 최종적으로는 고객에게 디지털화 스마트 공급망의 변혁을 가져오도록 하는 것이길 바랐다.

Geek+으로 말하자면 상장까지 '삼보 걷기' 전략으로 달성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은 일이다. 자신도 잘 해야 하고 경쟁상대보다 더 잘 해야 한다.

중국내 경쟁 국면에 대해 정용(郑勇)은 전염병 단계에서 2020년 산업은 한차례 개편에 직면하고 일부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 혼돈의 시간이나 돌파하는 시기이다

Geek+은 여전히 창업형 기업에 속하며 초기에 제품기술이 일류인 지위에 기대었지만 앞으로 발전하려면 더 많은 고객의 관심이 필요하고, 시장의 구동력을 이용하고 고객과의 연결이 점점 더 중요하다. 이는 모하게 창업회사가 그리 잘하는 부분이 아니다.

정용(郑勇)은 이러한 변혁이 To B 비즈니스를 하는 Geek+에게 그리 쉽지 않지만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며 이렇게 해야만 미래가 있고 많은 경쟁에서 싸울 힘을 보유한다는 것을 깊이 알고 있다.

해외 경쟁 국면에서 로봇 산업은 하루가 다르게 새롭고 새로운 기업이 끊임없이 출현한다.

옛 말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다.

Geek+는 주도적으로 경쟁상대의 존재를 감지하고 적수의 실력을 판단하고 목적은 적수를 추월하여 승리하는 것이다.

Geek+은 '듀얼 엔진'을 빌려 물류로봇산업에서 선두 지위를 얻었고 AMR 영역의 시장에서 세계 제 1의 점유액을 달성했으며 상장을 추구하고 충분한 자신감으로 지원받고 있다. 동시에 Geek+는 상장에 그치지 않고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스마트공급체인의 변혁을 가져오는 것이다.

중국이 세계레벨의 로봇 기업을 낼 수 있게 되었다. 다음 RBR50에도 Geek+가 있기를 바라본다.

## 4. 양자컴퓨터 시리즈 53) 미국하원 양자컴퓨팅의 전면적이고 심도있는 연구에 권한 부여할 법안 승인 예정 — 헤이구양자(黑谷量子) 제공

버지니아주 하원의원인 모건 그리피스 (Morgan Griffith) 는 화요일에 세계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미국 주도의 진보를 촉진하고 세계 양자 컴퓨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이해를 증대하기 위해 입법을 공표했다.

만약 통과한다면, <선진양자컴퓨팅법>은 상무부 장관과 기타 연방 기관 관리가 전면적인 조사 연구를 완성하도록 요구한다. 여기에는 4 가지 독립적 조사가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전면적으로 양자컴퓨팅을 연구하는 현황과 미국의 영향, 사회의 잠재 영향을 조사하게 될 것이다.

Griffiths 는 성명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다른 기타 국가에 의존할 수 없고, 특히 중국과 같은 경쟁 상대가 미국의 경제 리더의 지위를 보장하고, 우리의 중요한 물자 비축을 보호하며 기술진보가 우리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이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사진 1) 출처: Brandi Vincent

지난 10 년 동안, 양자 컴퓨팅은 연방 정부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고, 2018 년 <국가 양자 계획법>이 통과된 이후 특히 그러했다. 이 법안은 미국의 양자 기술 연구와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10 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

앞으로 5 년 안에 미국 기업들은 양자지상의 방향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으며, 각 기관들은 첨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새로운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시작했다. 또한 대통령은 2021 회계 연도에 양자 투자에 최소 10 억 달러를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Griffiths 의 법안은 미국의 양자 현실과 잠재력을 돕기 위해 고안되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그 목적은 양자 컴퓨팅이 어떻게 경제에 이익을 주고 공급망 위험을 추적하고 경감시키는지에 대해 연방 관원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된 후 2 년 안에 상무부는 정부와 적합한 합작팀 결합을 문의하기 위해서 4 차례 양자 중점 조사를 수행할 것이다. 첫 번째는 "양자컴퓨팅조사"로, 양자 컴퓨팅 산업 부문 리스트와 양자 채택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파트너십을 건립 보급할 것이다.

두 번째 조사에서는 이 기술과 관련된 "연방 활동"에 심도 토론할 것이다. 이 조사는 "양자 컴퓨팅과 관련된 모든 기관간 활동을 확정"하고 공공과 사적 양자 활동을 관할하는 기관 및 부서의 전체 목록을 건립한다.

이 조사는 또한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연방 기관의 실제 관할권과 전문지식을 설명하고 "각 연방 기구가 실시하는 모든 연방 규칙, 법규, 준칙, 정책과 기타 연방 활동을 확정해야한다.

이어서 "국제 조사"로 "최소 10 개국에서 15 개국을 초과하지 않는 국가의 요약"이 만들어진다. 평가에는 각 실체의 국가 양자 전략이 포함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비교에서 미국의 순위를 지정해야 한다.



사진 2) 출처: 헤이구양자(黑谷量子) 제공

최종 조사는 현재, 신흥 및 장기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양자 컴퓨팅 시장과 공급망에 중점을 둘 것으로 또한 외국 정부나 기타 정부가 어떻게 공급망과 시장 기능을 사용하여 미국의 국가와 경제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지 연구할 것이다.

연구를 6 개월 이내에 완성할 것으로 예상하며 비서와 기타 관련 담당자가 조사 결과를 하원 에너지와 상무위원회, 하원상업·과학·운수위원회에 제공할 것이다.

이 그룹은 또한 양자 채용을 방해할 수 있는 반복성 정책 또는 규칙의 건의, 양자 공급망의 손해에 대한 전략의 응대와 정지 등을 포함한다.

Griffiths의 입법안은 하원 에너지와 상무위원회, 과학·우주·기술과 외교 사무위원회로 전해졌다고 한다.

## ICO News Letter by PLAYCOIN

### 1. 中 도자기 업계, 생산·유통에 블록체인 기술 적용 (전자신문, 2020.06.24)

중국 도자기 업계가 유통과정에서 제품의 진위를 정확히 구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기로 했다.

22 일 중국 언론 신라차이징에 따르면 세계적 도자기 산지이면서 중국 최대 도자기 산지인 장시성의 '징더전' 소재 도자기 기업이 알리바바그룹 앤트파이낸셜의 블록체인 서비스인 '앤트 블록체인(Ant Blockchain)'과 손잡고 도자기 산업의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이 프로젝트를 위해 징더전시 국자운영투자홀딩그룹유한책임회사와 10 대 도자기 브랜드 '황야오'가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도자기 기업은 향후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이곳 징더전에서 생산, 판매되는 도자기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게 된다. 도자기 상품의 유통, 거래, 자금, 유동량 등 데이터가 모두 블록체인상에서 위변조 불가능하게 된다.

또 상호 신용 원가를 낮추면서 도자기 산업의 디지털화를 통해 각 기업의 신용 자산 흐름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한다. 도자기 산업에서 디지털 신뢰 가능 체계에 기반한 개방된 협력 네트워크 모델이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국가적 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곳의 도자기 지식재산권(IP) 보호 문제는 심각했다. 그간 도자기 산업에는 명확한 표준이 없어 진품과 가품 판별이 어려웠다. 이로 인해 가품의 범람 문제가 심각했으며 도자기 산업의 브랜드 역시 깎아내렸다. 징더전 시장에서도 가품이 판칠 정도였으며, 문화유산으로서 도자기 산업에 입히는 손실이 컸다.

여기에 코로나 19 확산으로 여러 오래된 중소 도자기 기업들의 경영난이 심화하면서 신용 시스템의 구축 역시 필요했다.

이처럼 전통적 운영 모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디지털화로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 블록체인과의 접목을 꾀한 것이다.

앤트 블록체인은 이미 보유한 블록체인 관련 기술 인프라를 활용해 이번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 2. 이오스 1 위 유지...트론·이더리움 뒤이어 (COINREADERS, 2020.06.24)

중국공업정보화부 산하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中国电子信息产业发展研究院, CCID)이 발표한 '18 차 퍼블릭체인 평가'에 따르면, 이오스(EOS)가 지난 17 차 평가에 이어 1 위를 차지했다. 시가총액 1 위 암호화폐(가상자산) 비트코인(比特币, BTC)은 12 위에 그쳤다.

21 일(현지시간) 전자정보산업망(电子信息产业网) 등 다수 중국 블록체인 매체에 따르면, 최근 중국 공업정보화부 산하 중국전자정보산업발전연구원(CCID)은 총 37 개 암호화폐 프로젝트를 검토해 '제 18 기 CCID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 평가 지수(赛迪全球公有链技术评估指数, 第 18 期)'를 발표했다.

그 결과 총점 150.6 점을 받은 이오스(EOS)가 1 위로 선정됐다. 이오스는 기초 기술(基础技术, Basic-tech) 부문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다.

이오스와 더불어 세계 3 대 주요 디앱(DApp,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인 트론(波场, TRON)과 이더리움(以太坊, ETH)이 2, 3 위를 각각 차지했다. 이더리움은 응용성(应用性, Applicability) 부분에서 1 위를 차지했다.

4 위부터 10 위는 이오스트(IOST), 리스크(应用链, Lisk), 네오(NEO), 쿼텀(Qtum,量子链), 널스(纳世链, NULS), 스텔라(恒星链, Stellar), GX 체인(公信链, GXChain) 순이었다 .

특히 최초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이며 세계 1 위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종합 평가 106.2 점으로 12 위에 올랐으며, 지난 평가 대비 2 순위 올랐다. 비트코인은 독창성(创新力, Creativity) 부분에서는 압도적 점수를 받았다. 시가총액 4 위 암호화폐인 리플(瑞波链, Ripple)은 14 위를 기록했다.

CCID 는 지난해 5 월부터 베이징대, 칭화대, 베이징기술대 교수진과 함께 블록체인 기술을 평가해 순위를 정하고 있다. 첫 랭킹에는 28 개 암호화폐가 포함됐으며 이더리움이 1 위를 차지했다.

### 3. 중국 난징, 172 억 상당 블록체인 쿠폰 발행..."코로나 19 피해 지원"

(blockinpress, 2020.06.24)

중국 난징(南京) 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블록체인 쿠폰을 발행한다.

22 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는 중국 현지 매체의 보도를 인용, "난징 시가 식료품 구매, 교통비 및 전기요금 지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쿠폰을 지급한다"고 전했다.

난징 시는 이를 위해 지난 2 일 디디트레블(Didi Travel), 피자헛, 까르푸 등의 기업과 '난징 시 소비 동맹'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동맹은 약 1 억 위안(한화 약 172 억 원) 상당의 쿠폰을 발행해 단기적인 소비 회복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중국의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 JD 파이낸스는 2018 년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스마트시티를 구축하기 위해 난징 시에 연구소를 개소했다. 중국 중앙은행도 같은 해 난징 시에 디지털화폐 연구소를 설립한 바 있다.

### 4. '블록체인 플러스' 위한 텐센트의 투트랙 전략 (coindesk, 2020.06.25)

한때 중국에선 '인터넷 플러스(互联网+)'라는 말이 유행했다. 리커창 전 총리가 2015 년 처음 쓴 표현으로, 전통 산업이 인터넷을 만나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플러스(区块链+)'가 그 자리를 대체했다.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를 만나 혁신을 이룰 수 있다는 기대가 담겼다.

중국 최대 모바일 메신저 위챗(微信) 운영사 텐센트(腾讯)의 블록체인 전략도 '블록체인 플러스'와 닿아 있다. 블록체인 플러스는 '연결'과 더불어 텐센트가 지난해 10 월 발간한 블록체인 백서의 핵심 키워드다. 텐센트는 백서에서 '블록체인 플러스' 솔루션을 통해 "기업과 기업 간, 기업과 소비자 간 가치의 연결을 돕겠다"고 강조했다.

텐센트가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두고 자체 연구를 시작한 건 2015 년부터다. 이듬해인 2016 년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중국 블록체인 기술 및 응용 발전 백서'를 발간하고, 블록체인 기술 발전을 위한 로드맵과 기술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텐센트는 이 즈음 서비스형 블록체인 개발을 위한 전담팀을 내부에 구성했다. 이후 텐센트는 코어 기술 개발과 응용 사례 모색을 동시에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을 적극적으로 펼쳐 왔다.

텐센트는 2017 년 11 월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 플랫폼 트러스트 SQL 을 선보였다. 트러스트 SQL 은 전자 영수증 발행과 금융, 스마트 의료, 법무, 게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활용되고 있다고 텐센트는 전한다.

트러스트 SQL 의 첫 활용 사례는 2018 년 8 월 출시된 블록체인 기반 전자 영수증(发票) 발행 시스템이다. 텐센트 자료를 보면, 이 시스템을 통해 2019 년 8 월까지 1 년간 하루 평균 4 만 4 천장, 총 600 만장의 전자 영수증이 블록체인에서 발행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39 억위안어치에 달한다.

금융 플랫폼 위체인(微企链) 구축에도 트러스트 SQL 이 쓰였다. 위체인은 채권을 양도 또는 판매하는 플랫폼으로, 증권사와 은행, 사모펀드, 보험회사 등의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텐센트는 2019 년 5 월 기준 100 억위안 규모의 확정 예치금이 모였다고 밝혔다.

텐센트는 지난해 4 월 트러스트 SQL 기반으로 만든 블록체인 기반 증강현실(AR) 게임 렛스헌트몬스터(一起来捉妖)를 출시했다. 이 게임은 지난해 4 월 중국 아이폰 앱스토어 무료 게임 분야 다운로드 순위 1 위에 올랐다.

텐센트는 지난해 디지털 법원을 위한 기초 인프라인 '지신체인(至信链)' 구축도 완료했다. 앞서 2018 년 중국 대법원인 최고인민법원은 법률 분쟁에서 블록체인상에 기록된 증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고 발표한 상태다.

텐센트는 트러스트 SQL 을 출시한 2017 년 11 월, 기존의 클라우드 기술을 바탕으로 개발한 서비스형 블록체인 TBaaS 도 출시했다. TBaaS 는 실제 상용화 가능한 응용 사례를 만들어 내는 데 보다 초점을 맞춘 플랫폼이다. 텐센트는 "블록체인의 응용 사례를 한 차례 더 확대하고 기술 활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개인과 기업들이 쉽게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TBaaS 는 현재 하이퍼레저 패브릭과 FISCO BCOS 를 지원한다. FISCO BCOS 는 텐센트가 지분의 약 30%를 보유한 선전 소재 디지털은행 위뱅크가 구성한 자체 오픈 컨소시엄 체인으로, 지난해 중국 최초의 국가급 블록체인 얼라이언스인 블록체인서비스네트워크(BSN)에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다. 텐센트는 백서를 통해 현재 트러스트 SQL 을 지원하는 TBaaS 또한 개발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텐센트는 투자와 외부 협력 등을 통해 트러스트 SQL 과 TBaaS 의 생태계를 확장하고 나섰다. 텐센트는 이달 초 기업용 블록체인 얼라이언스를 출범시키고, 올해 안에 기업과 산업 협회, 대학, 연구소 등 100 개 회원 기관을 모아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적 활용 사례를 연구하고 산업 표준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 월에는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 '텐센트 산업 액셀러레이터' 모집을 시작했다. 텐센트는 블록체인 기반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할 초기 단계 스타트업과 블록체인 도입을 검토 중인 기존 기업 등 총 30 개 기업을 선정해, 멘토링과 해외 산업 탐방 등을 지원하고, 1 년간 약 1 만 4 천달러 가량의 TBaaS 이용료를 면제해 주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9 월 텐센트는 블록체인 스타트업 에버레저의 2 천만 달러 규모 시리즈 A 투자를 주도했다. 해당 투자에는 자산관리회사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이 참여했다.

## 사장님이 꼭 알아야 할 디자인 (131)

본 자료는 아시아디자인연구원(ADI) 원장이며, 상하이교통대학 디자인 학원 산업디자인학과 윤형건 교수의 글입니다. 본 자료 관련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윤형건 교수(yoon\_bam@126.com)께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 과유불급 디자인

‘과유불급(過猶不及)’ 모든 사물이 정도를 지나치면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는 뜻으로, 중용(中庸)이 중요함을 가리키는 말이다.

더도 덜도 아닌 적당하다는 것이 인생사에서도 중요하다는 것을 살면 살수록 알게 된다. 디자인에서도 더도 덜도 아닌 것이 중요하다. 너무 과한 디자인은 부담을 준다. 부담을 주는 디자인은 좋은 디자인이 아니다.



(3 종류의 건전지가 동시에 들어 갈 수 있는 후레쉬)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후레쉬 하나를 필자에게 건네 준다. 일본 유학 당시 하나 구입하였다고 한다. 80년대 후반에 생산한 제품이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 제품을 받았다. 일본을 대표하는 유명 메이커 제품이다. 조심하게 사용해서 그렇겠지만 어느새 30년이 넘었는데 새 것 같다. 좋은 원료의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어디 한 구석이 상한 곳이 없다. 역시 브랜드 이름 값을 한다.

일본인은 언제나 천재지변에 대비하며 산다. 일본에서는 후레쉬는 비상제품으로 기본이다.

이 후레쉬는 참 재미있는 부분이 있었다. 보통 후레쉬는 한 종류의 건전지를 넣는데, 이것은 세가지 종류의 건전지를 동시에 넣을 수 있다.

후레쉬를 구입할 때 은근히 신경이 쓰인다. 그래서 필자는 다 쓴 건전지를 가지고 가서, 매장에서 크기를 확인하고 산다.

타입	AAAA타입	AAA타입	AA타입	C타입	D타입
용량	550	1150	2850	7800	15000
이미지					

(원통형 건전지의 종류)

현재 팔리고 있는 원기동형태의 건전지는 5 종류가 있다. 요즘은 한국에서는 제일 작은 크기의 AAAA 와 AAA 사이즈를 제외한 AA 와 이것보다 좀 큰 C, 원기동 형태에서 제일 큰 D 를 동시에 넣을 수 있다.

아마 이것을 처음 아이디어를 낸 디자이너는 어떤 건전지도 다 수용할 수 있다는 콘셉트로 접근하였을 것이다.

필자는 세 종류의 건전지를 사서 후레쉬에 장착하여 사용하여 보니 제법 무게가 나갔다. 무게는 고사하고 건전지는 오래 두면 건전지가 스스로 방전을 한다. 매일 같이 사용하면 별 문제는 되지 않지만, 어쩌다 사용하는 것이 방전이 되어 사용할 수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오히려 도움을 주려고 한 아이디어가 민폐가 될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는 아이디어로 재미있지만, 실제로는 활용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친절도 좋지만, 이런 친절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모든지 적당한 것이 좋다.

# 일본 전문가 시각으로 본 중국

## 1. 대국화된 중국에 일본은 어떻게 마주해야 할 것인가 (동양경제온라인, 2020.6.20)



사진 1) 출처: Top Photo / 아프로. 대국화 된 중국에 어떻게 대응해 갈 것인가. 사진은 2019 년 12 월에 베이징에서 회담한 아베신조수상(좌)와 중국의 시진핑국가주석

일본 외교에 있어서 중국을 상대하는 것만큼 복잡하고 귀찮은 것은 없을 것이다. 미국과의 사이에는 미·일 안보조약이라는 든든한 기반이 있어, 때로는 '대미 추종외교'라는 비판을 받으며 미국에 보조를 맞추면서 안정된 관계를 유지해 왔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주요국과의 사이에는 애초에 국가관계를 흐드는 심각한 문제가 없다. 반면 한국이나 북한, 러시아처럼 역사 문제나 영토 문제 등을 놓고 정면으로 주장이 맞서는 경우는 외교 협상 자체가 성립되기 어렵기 때문에 자국의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으면 된다.

### ■ 새로운 대중 외교 전략의 시대로

그러나 중·일 관계는 그리 단순하지 않다. 1972 년 국교정상화 이후 역사문제를 비롯한 어떤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나름대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야 할 숙명에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중국이 내세운 홍콩의 국가안전법 제정은 그 동안 양국이 유지해 온 중일 관계를 크게 바꿔놓을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중국이 대국화한 것으로 일본이 개별적으로 중국을 마주보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끝났다. 국제사회와 연계한 새로운 외교전략이 필요해진 것 같다.

국교 정상화로부터의 약 반세기를 되돌아 보면, 일중 관계는 극적으로 변화해 왔다. 정상화 후는 일본 내에 일중 우호 무드가 높아져, 일중 관계는 단번에 개선했다. 1980 년대에는 일본 역사 교과서 문제와 나가소네 야스히로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식 참배 등의 문제를 일으키고 중국에서도 1989 년 톈안먼 사건이 일어났다.

최근 일본의 GDP 는 중국의 약 5 배, 1 인당 소득은 약 30 배로 경제력은 중국을 압도했다. 안전보장 면에서도 자위대와 주일미군과 미국 7 함대를 합친 군사력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힘이 미치지 못했다.

그런 상황에서 중-일 간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는 관대함을 보일 여유를 갖고 있었다. 교과서 문제는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교과서 검정 기준을 수정했다. 나카소네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중국에의 배려로부터 1 년에 끝났다. 텐안먼 사태로 중국이 서방국가들의 비판을 받으며 국제적으로 고립되자 일본은 재빨리 엔화 차관 동결 해제를 선언하는 등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섰다. 중국의 자세도 지금과는 사뭇 달랐다. 당시 최고지도자인 덩샤오핑이 내세운 것은 개혁개방 노선이었고, 서방의 시장경제 시스템을 적극 도입해 중국의 경제발전을 추진했다. 이를 상징하는 게 도광양회 '韜光養晦'라는 말이었다.

"재능을 숨기고 안에 힘을 기르겠다"는 뜻으로 이념 등에 연연하지 않고 저자세로 서방국가를 대하고 그 기술 등을 도입하는 철저한 프래그마티즘이었다. 실제로 1978 년 방일 때 덩샤오핑은 "이제부터는 일본을 본받아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현재 시진핑 체제의 행태와는 대척점에 있었다.

#### ■ '관용 외교'에서 '원칙 중시 외교'로

1990 년대 후반 이후가 되자, 경제력을 더해 온 중국의 행동태도는 서서히 변화해 왔다.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중국 조사선의 불법 해양조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게 되었다. 해저자원 탐사와 잠수함의 항로 개척 등이 목적이며 일본 정부는 그때마다 중국 측에 항의를 거듭했다.

일본 주변에서 중국 해군의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것도 같은 시기였다. 이어 1995 년과 1996 년에는 핵실험을 반복했다. 중일관계는 점차 뼈격거리기 시작해 일본 정부의 대응은 '여유와 관용'에서 '원리원칙 중시'로 전환했다. 2001 년 봄 대만 총통에서 퇴임한 리덩후이 씨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방일 비자를 신청해 왔다. 리덩후이 씨를 대만 독립파로 지목했던 중국 정부는 리 씨 방일을 정치활동이라며 일본 정부에 비자를 발급하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외무성은 국장 이상이 모인 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협의했으나 놀랍게도 한 국장을 제외하고 모든 간부가 비자를 발급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중국의 주장은 이치가 없다는 것이다. 모리 요시로 총리의 퇴진 직전이라는 타이밍이었지만 총리 관저는 외무성의 판단에 따라 최종 비자 발급에 고 사인을 냈다. 모리 정권에서는 이 밖에 역사교과서 문제가 다시 불거졌지만 중국의 수정 요구를 일본 정부는 내정 문제라며 일축했다. 1980 년대와는 확연히 달라진 대응이었다.

2010 년 일본의 GDP는 결국 중국에 추월당했고, 2019 년에는 3 배까지 차이가 났다. 중국의 군사비도 계속 늘어나 이제 미국에 이어 세계 2 위의 군사대국이다. 그 액수는 일본의 5 배가 넘는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등장으로 덩샤오핑의 도광양회는 사라지고 대신 나온 것은 일대일로이자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다.

#### ■ 다국간 틀 살린 대중역제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한때 대중 강경론이 제기됐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일본 정부가 내세운 것은, 다양한 국제 기구나 ASEAN 를 시작으로 한 지역의 다국간의 관계등을 움직여, 중국을 억누르는 것과 동시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전략이었다.

일본이 전면에서 나서 중국과 마주한들 교섭의 진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그래서 많은 나라를 관여시키는 수법으로 선회한 것이다. 중국이 남중국해의 암초를 매립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동시에 군사기지화해 나간 문제에서는, 중국에 비판적인 나라에 요구해 이 문제를 ASEAN 정상회의등에서 다루게 했다. 중국에 비판적인 필리핀이 상설 중재 재판소에 중재를 요청해 2011 년 '중국의 주장은 국제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이 움직임에 일본 정부도 깊이 관여했다.

게다가 일·미, 인도, 오스트레일리아의 4 개국이 제휴해, 다른 아시아 제국을 끌어들이 지역적인 제휴의 틀을 만드는 '인도 태평양 전략' 구상도 일본이 미국을 압박한 것이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에서 적극적 역할을 한 것을 포함해 모두 중국을 강하게 의식한 전략이었다. 눈에 띄지 않는 수법의 대중 정책은, 반드시 충분한 성과를 올렸다고는 단언할 수 없지만, 중국 문제는 이미 일본 혼자서 끌어안을 문제가 아니게 된 이상, 어쩔 수 없는 대응일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것은 홍콩의 국가안전법이다. 중국에 있어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은 홍콩 독립을 목표로 하는 테러 행위일 뿐이며, 봉쇄하지 않으면 대만이나 위구르등으로 비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본을 포함한 구미 국가들로서는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대원칙이 무너져 버리는 본질적인 문제다.

여기서 일본 정부는 어떻게 처신하려는 것일까. 6 월 18 일 새벽 '홍콩에 관한 G7 외교장관 성명'이 발표되었는데, 그 내용은 중국에 대해 상당히 엄중한 표현을 담고 있다. 국가안전법에 대해서, '한 나라 두 제도의 원칙이나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라고 비판. 이어 열린 토의,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그리고 홍콩에서 보호받을 권리와 자유 존중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한 뒤 중국 정부가 이 결정을 재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 홍콩·국가안전법이 묻는 근본 문제

외교장관 차원이긴 하지만 G7 국들이 보조를 맞춰 중국의 대응을 분명히 비판한 의미가 크다. 이번 성명 발표에 관해 일본 정부는 물밑에서 상당히 적극적으로 움직였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홍콩 문제는 단순화하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나 권위주의 체제나 선택의 문제자 국가의 근본문제다. 2020 년 가을로 예정되어 있는 입법원 선거를 향해서 홍콩 정세는 긴박해, 작년과 같은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또 11 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비판이 거세지면서 미·중 관계도 긴장을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거기서 일본이 어떻게 대응할지는, 지금까지의 영유권 문제등과는 비교가 안 되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 거기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 국제사회에서의 일본의 존재감은 없어져, 정작 중국으로부터도 가볍게 보여질 것이다. 그렇다고 단독으로 돌출된 중국 비판을 전개해도, 반발만 사는 것만으로 성과를 얻기 어렵다. 외교에는 원리 원칙과 함께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국익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프래그머티즘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양측의 균형을 잘 맞춰 나가는 프로의 기술이 중요하다.

일본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TPP 구상이나 인도 태평양 전략 구상을 제기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나라를 끌어들이 전략적 대응을 실현하는 것일 것이다. 예컨대 외교장관급 공동성명에 이어 다음번엔 홍콩 문제를 주제로 한 G7 정상 화상회담을 촉구하며 중국에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도 있다. 중국의 자세는 굳건하고 움직임은 빠르다. 남은 시간은 별로 없는 것 같다.

## 2.중국과 일본, 지금 실력을 비교해 보았더니 ‘일본의 패전’이 보였다... !

(현대비즈니스, 2020.6.23)

### 일본, 절망의 ‘코로나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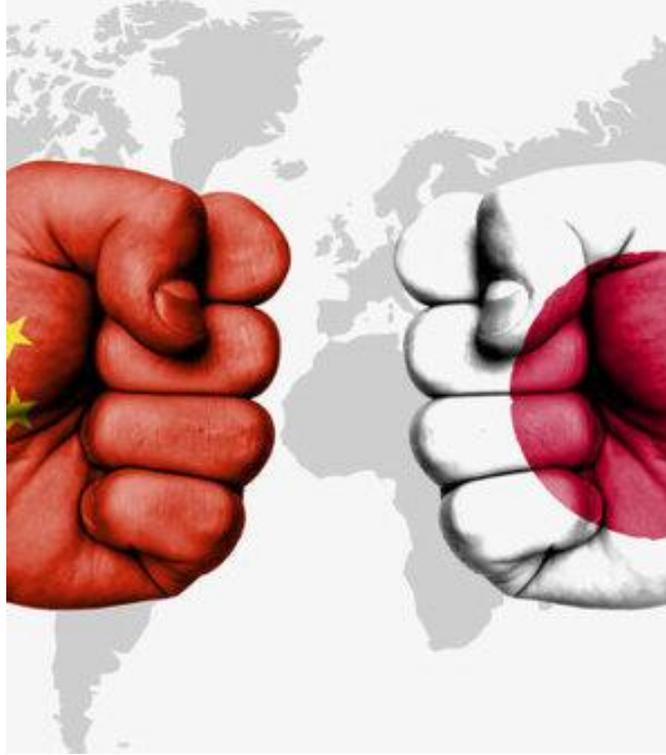


그림 1) 출처: 현대비즈니스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의 제 2 차 보정 예산안이, 각의 결정후 16 일 후인 6 월 12 일에 성립했다. '진수'라고 불리는 실제의 재정 지출은 약 32 조엔이며, 제 1 차 보정 예산의 '진수'와의 합계는 약 58 조엔에 이른다. 그러나 아무리 거액이라도 자숙휴업으로 수입을 잃은 개별 기업이나 개인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정권의 자기만족에 불과하다. 실제, 1 인당 10 만엔의 일률 급부금도 고용조정 조성금도, 지속화 급부금도 대응에 시간이 걸려, 좀처럼 서민이나 영세 기업 밑에는 닿지 않는다. 녹장 대응으로 돈까스 가게 비극이 벌어졌던 기억이 새롭다. "어느 정도의 지구전은 각오해야 한다"며 아베 신조 총리가 긴급사태 선포 연장을 실질적으로 선언한 지 약 3 시간 뒤인 4 월 30 일 오후 10 시경 도쿄 네리마구의 노포 돈까스 점포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인 남성이 전산화상으로 사망했다. 몸에 기름을 뒤집어썼다고 보도한 언론도 있었다. 점주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확산으로 가게를 4 월 13 일부터 임시 휴무하고 있었다. 화재 당일의 저녁에는, 몹시 고민한 모습으로 '이제 가게를 접겠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지방 자치체나 나라에 보조금을 신청하려고도 이야기하고 있었다고 한다. 돈까스 주인의 비극은 중국에서도 보도됐고, 중국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기관지 '중국청년보'도 상세한 기사를 실었음을 보여주며 상당한 관심을 보였다. 중국에서도 도시봉쇄(록다운)로 중소·영세기업 존속이 위기에 처했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일 것이다.

### 중국의 놀라운 '즉단즉결即断即決'



사진 1) 출처: gettyimages. 놀라운 만한 스피드로 용자를 실행하였다

이야기는 4 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한 봉쇄 14 일 만인 2 월 6 일 중국의 초명문대 칭화대와 베이징대가 995 개 중소기업을 공동 조사한 결과가 보도돼 충격을 받았다. 도시 봉쇄로 매출이 없어진 보유현금으로 자기 기업을 몇 개월 유지할 수 있는지를 조사했더니 '1 개월 이내'라고 답한 기업이 34%를 차지한 것이다. 봉쇄가 한 달 지속되면 중소기업의 34%는 현금이 고갈되고, 운전자금을 추가로 조달하지 못하면 문을 닫거나 파산할 수밖에 없다. 지속 가능 기간이 2 개월인 중소기업은 33.1%, 3 개월은 17.91%이므로 도시 봉쇄가 2 개월 지속되면 중소기업의 67.1%, 3 개월 지속되면 85.01%가 문을 닫거나 도산하게 된다. 중국에서도 고용을 지탱하는 주력은 민영 중소·영세 기업이기 때문에, 이 조사 결과는 지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걱정은 기우에 그쳤다. 우한의 봉쇄는 4 월 8 일 해제되었다. 봉쇄가 시작된 지 77 일, 즉 2 개월과 17 일이 지났지만 산사태 폐업·도산 러시는 보도되지 않았다. 이유는 중국 당국의 금융지원이 가공할 속도로 이뤄졌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해 중국 중앙전자대 CCTV 뉴스(2 월 26 일)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4 대 국유은행 중 하나인 중국은행 베이징지점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방호복을 생산하기 위한 자재를 마련할 자금을 빌려주는 안건의 심사를 의뢰받은 위험관리부 부사장은 스마트폰 채팅 그룹을 통해 대출 신청을 한 기업주자와 은행 스태프와 협의해 2 시간 정도 만에 심사를 완료했다."

#### **완전 온라인, 전자동, 무담보, 실질재촉 없음...**

중국 중앙 TV CCTV 의 뉴스는 한층 더 이렇게 보도했다. "또한 4 대 국유은행 중 하나인 중국 농업은행 저장성 타이저우 해문지점은 의료용 광학렌즈를 생산하는 저장수정 광전과기라는 민영기업이 긴급물자 생산자 명단에 올라 있으니 중국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의 재용자 한도를 통해 1 억위안(약 15 억원)을 면담하면서 즉결했습니다." 이 가공할 속도의 배경에는 윤택한 유동성 공급이 있다. 우한 봉쇄 11 일 만인 2 월 3 일 중국 인민은행은 공개시장 조작에 따라 1.2 조위안(약 18.1 조원)을 상업은행에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2 월 4 일 5000 억위안(약 7.5 조원), 2 월 5 일 300 억위안(약 4500 억원), 2 월 10 일 9000 억위안(약 13.6 조엔), 2 월 11 일 1000 억위안(약 1.5 조엔) 등으로 계속 자금을 투입했다. 또 재대출 조작을 통해

3000 억위안(약 3 조 5000 억원)을 상업은행에 공급하고, 중요 의료품과 생활물자를 생산하는 기업에 우대금리로 신용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사진 2) 출처: 중국경제미디어 '新浪财经'의 스마트폰 어플 '新浪财经客户端'

이런 윤택한 유동성을 배경으로 중국 금융기관들은 신속히 대출신청에 응했다. 특히 4 대 국유은행 중 하나인 중국건설은행은 '억위안(약 15 억원) 단위의 대출 안건을 8 시간 만에 결정한다'며 '건설은행 속도'를 자랑했다. 스마트폰 화면에 나타나는 중국농업은행 광고(사진)는 자금쇼트를 일으킬 것 같은 중소·영세기업 경영자에게 순온라인, 전자동, 무담보, 실질재촉 없는 인터넷 대출 플랜까지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가공할 속도가 중국 중소·영세기업의 산사태와 도산 러시를 방지하고 있다. 설령 대출부정 신청이나 부실화가 우려된다고 해도 중소영세기업의 도산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대출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던 것이다.

### '모르는 새에 자금이 송금되어있다.....'

더욱이 중국에는 일본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공할 시스템이 있다. 지방정부가 현지 기업의 빅 데이터를 분석하고, 각 기업의 자금사정 등을 항상 실시간으로 감시하며, 어떤 기업의 운전자금이 부족할 것 같으면 그 기업의 은행계좌에 필요한 액수의 자금이 입금하는 것이다. 모르는 사이에 자금이 입금된 경영자는 놀란다. 2020 년 4 월 10 일(금) 일본 시간 오전 7 시부터 중국 중앙 TV CCTV 가 방영한 뉴스 프로그램 '신문천하 MORNING NEWS'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산둥(山東)성 시학시 항바이러스제를 제조하는 '신화제약 주식유한공사'에 대해, 淄博市 정부가 171 만 위안(약 2600 만엔)의 보조금을, 보조금 신청이 있기 전에, 동사의 계좌에 직접 불입했다.

淄博市 정부의 인력자원·사회보장국 취업촉진·실업보험과는 관할 기업의 인원삭감률이나 실업보험 환급금의 데이터를 하나로 묶어 비교 대조해 각 기업의 부족자금액을 산출하고, 그것과 같은 금액의 보조금을 해당 기업의 은행계좌에 직접 입금하고 있다. 또한 淄博市정부는 1.5 개월간 고용안정보조금

1.2 억위안(약 18.3 억엔)과 대학졸업생 생활보조금 2000 만위안(약 3.05 억엔)을 지급했다. 인구 470 만의 지방 중급도시인 淄博시에서 이만큼의 일을 할 수 있으니 북경(인구 2154 만), 상하이(2428 만), 광저우(1404 만), 충칭(3048 만), 청두(1633 만), 선전(1253 만), 항저우(1036 만) 등 거대도시에서는 한층 더 빠르고 고도의 중소·영세기업 지원 그리고 개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하나부터 열까지 엄청난 차이**



사진 3) 출처: gettyimages. PCR 검사 스피드감도 압도적

감염 대책에서도 중국은 초고속이다.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개발한 인공지능(AI) 애플리케이션은 흉부 X 레이 사진 등의 정보를 통해 1 분 만에 감염 가능성을 판정한다. 거리의 도처에 붙은 QR 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읽어 가는 것으로, 자신이 감염한 리스크가 자동적으로 판정되어 감염 리스크가 높아지면 스마트폰의 화면이 붉어져, 어디에도 출입할 수 없게 된다. 봉쇄를 해제했던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집단 감염이 다시 발생하자 5 월 14 일부터 6 월 1 일까지 18 일간 전체 주민 989 만 9828 명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실시했다. 이 초고속 검사는 10 인분의 자료를 취합하여 PCR 검사를 실시하고, 한 그룹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다시 개별 자료를 PCR 검사하는 교묘한 연구로 실현되었다. 주민 전원을 PCR 검사한 결과, 증상이 있는 감염자는 0 명, 증상이 없는 감염자는 300 명(0.303%)이었다. 무증상 감염자와 농후 접촉한 1174 명의 추적 조사가 진행되었으며 PCR 검사를 한 결과 전원이 음성으로 나타났다. 우한 시 정부는 우한은 가장 안전한 도시라고 선언했다. 우한시에서 전 주민의 PCR 검사가 완료된 다음 날인 6 월 2 일, 감염자가 증가한 도교도는 '도교 경보'를 내렸고, 도교도청과 레인보우 브릿지는 빨간색으로 라이트 업 되었다.

**일본은 재차 '패전'을 맞게 되는가**

국민의 비능률이었던 점, 관료의 독선적이었던 점 등 여러 이유가 종합해서 전쟁의 패인이 됐다. 패전 다음 달인 1945 년 9 월 원자폭탄으로 초토화된 히로시마에서 아베 총리의 조부 기시 노부스케 내각의 운수대신을 지낸 나가노 마모루(1890~1970 년)는 이렇게 강연했다. '국민의 비능률'의 예로 나가노

마모루는 같은 해 8 월 29 일 아쓰기 비행장을 점령한 미군이 요코스카에서 약 40km 떨어진 아쓰기까지 기름을 운반하는 파이프라인을 시설하도록 일본 군인에게 명령하자 '3 년 걸릴 것'이라고 답하자 미군 스스로 27 시간 만에 시설해 버린 사례를 들고 있다. 미군이 27 시간이면 될 일을 일본군이 3 년이나 걸리니 패전은 필연적이었다. 아베 총리는 4 월 1 일 전세대에 천 마스크 2 장을 배급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배부가 종료되었다고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것은 겨우 6 월 15 일이었다. 천 마스크 조달에 184 억 엔, 배송에 76 억 엔이 든 것보다, 천 마스크가 든 행선지를 적지 않은 봉투를 각 세대의 포스트에 투함하는 데 75 일이나 걸린 것이 놀랍다. 아베 총리는 중소 영세기업과 개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속도감 있게 하겠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그러나 많은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아직 입금되지 않았다. 이대로 '제 2 파'가 오면 쓰나미 같은 폐업·도산 러시가 일어나 길거리를 헤매는 사람이 대거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 스피드 부족으로 일본은 이번엔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패전할까.

### 3. 슈퍼컴퓨터 성능 랭킹에서 일본이 1 위에, TOP500 은 '富岳 후가꾸'으로 Green500 은 'MN-3' (MONOist, 2020.6.24)



사진 1) 출처: MONOist, 슈퍼컴퓨터 '후가꾸 富岳' ( 개발 · 정비중 )

2020 년 6 월 22 일(현지시간) 온라인에서 개최중인 HPC 의 국제회의 'ISC 2020'에서 발표된 복수의 슈퍼 컴퓨터 랭킹에서 일본의 시스템이 1 위를 획득했다. 이화학 연구소와 후지쯔가 공동 개발한 슈퍼 컴퓨터 '후가꾸'는, 성능 랭킹으로서 널리 알려진 '제 58 회 TOP500 리스트'외, 'HPCG(High Performance Conjugate Gradient)', 'HPL-AI', 'High Performance Conjugate Gradient' 'HPL-AI', 'Graph500'으로 1 위가 되었다. 또, Preferred Networks(이하, PFN)가 개발한 심층 학습용 슈퍼 컴퓨터 'MN-3'는 전력 절약 성능 랭킹인 'Green500 리스트'로 1 위를 획득했다. 이번 TOP500 리스트에 등록된 '후가꾸'의 시스템은, 396 케이스(15 만 2064 노드, 전체의 약 95.6%)의 구성으로, 랭킹의 지표가 되는 LINPACK 성능은 415.53 PFLOPS(페타플롭스), 실행 효율은 80.87%였다. 일본의 슈퍼 컴퓨터가 TOP500 으로 제 1 위를 획득하는 것은,

'쿄'의 2011 년 11 월(제 38 회 TOP500 리스트) 아래가 된다. TOP500 리스트 2 위인 미국의 'Summit'는, LINPACK 성능이 148.6 PFLOPS 이며, 후가꾸는 그 2.8 배의 성능을 산출한 것이 된다. TOP500 뿐만이 아니라, 산업 이용 등 실제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자주 이용되는 공액경사법의 처리 속도의 국제적인 랭킹인 HPG, AI(인공지능)의 심층 학습에서 주로 이용되는 단정도나 반정도 연산 처리에 관한 성능 벤치마크인 HPL-AI, 대규모 한편 복잡한 데이터 처리가 요구되는 빅데이터 해석의 중요 지표인 대규모 그래프 해석의 성능을 나타내는 Graph500 에서도 1 위를 획득한 것도 큰 의미를 가진다. '새로운 가치를 낳는 초스마트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Society 5.0 에 있어서, 시뮬레이션에 의한 사회적 과제의 해결이나 AI 개발 및 정보의 유통·처리에 관한 기술개발을 가속하기 위한 정보 기반 기술로서 후가꾸가 충분히 대응 가능한 것을 실증하는 것이다'(뉴스 릴리스로부터 발췌)이라고 한다. 덧붙여 Graph500 의 1 위 획득에 대해서는, 이화학 연구소, 큐슈 대학, 픽스타즈, 후지쯔의 4 자에 의한 공동 연구 그룹의 성과에 의한 것이다.

### PFN 이 개발한 심층학습용 슈퍼컴퓨터가 Green500 의 1 위로

한편, PFN 의 MN-3 는, 슈퍼 컴퓨터의 전력당 연산 성능을 나타내는 HPL(High Performance Linpack) 벤치마크로 21.11 GFLOPS/W 의 처리 성능을 실현했다. 이는 Green500 리스트의 역대 최고 성능인 18.404GFLOPS/W 의 1.15 배에 해당한다. MN-3 는, PFN 와 코베 대학이 공동 개발한 초저소비 전력의 심층 학습용 프로세서 'MN-Core'를 탑재. JAMSTEC(해양연구개발기구) 요코하마 연구소 시뮬레이터동에 설치되어 2020 년 5 월부터 가동을 개시했다. 이번 측정에 사용한 시스템은 MN-3 전체 중 40 노드, MN-Core 160 개로 구성되어 있다. MN-Core 외에도, 고속으로 고효율의 노드간 데이터 전송을 실현하는 인터커넥트 'MN-CoreDirectConnect'나, HPL 벤치마크의 핵심 부분인 배정도 행렬적 연산을 효율화하는 최적화 기술, 다수의 MN-Core 를 집약해 전력 효율을 최대화하는 기술등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 4. 우주에서도 발발 ! '중국'VS'미국'패권싸움의 행방 (동양경제온라인, 2020.6.22)

최근 이노베이션(innovation) 분야에서 경이적인 발전을 이룬 중국. 미·중의 대립은 과학기술 전쟁으로 발전하여 세계를 뒤흔드는 최대 과제 중 하나이다. 쿠라사와 하루오 저 '중국, 과학기술 패권에의 야망'을 일부 발췌·재구성해, 우주를 둘러싼 '미중 신냉전'의 구조를 풀어 본다. 아폴로 11 호의 유인 달 착륙 50 주년인 2019 년 1 월 3 일 중국 달 탐사선 창어 4 호가 우주개발 사상 처음으로 달 뒷면에 연착륙하는데 성공했다. 창어 4 호는 착륙선(랜더)과 달 탐사차(로버)인 옥토 2 호로 구성됐으며 달 모양을 촬영하는 풀 파노라마 카메라, 물질 조성을 조사하는 분광계, 천지층 구조를 조사하는 달 탐사 레이더 등 다양한 측정기를 탑재했다.

달 표면의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중성자·방사선량 검출기'는 독일제, 달면을 날아다니는 입자를 조사하는 '중성 원자 검출기'는 스웨덴제이다. 세계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물의 존재다. 만약 상당량의 물이 존재한다면 장차 달면에 항구적인 기지를 건설할 때 압도적으로 유리해진다. 물은 생물의 생존에 필요할 뿐 아니라 원자력 에너지를 이용해 산소와 수소로 분해해 화성을 향할 때 로켓 연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어 4 호가 착륙한 달 남극 부근에는 얼음의 존재가 예상되고 있다.



사진 1) 출처: China National Space Administration / 신화사 / 아프로. 중국의 달탐사기 '嫦娥 4 호'는 2019 년 1 월 3 일, 달 남극에 가까운 '에이트켄 분지'에 연착륙에 성공했다

■2013 년 세계 3 번째로 달 연착륙 성공

창어는 중국 신화에 나오는 선녀의 이름으로 불로불사의 영약을 먹고 달에 올랐다고 한다. 중국의 달 탐사 계획은 '繞·落·回'의 3 단계로 이루어진다. 제 1 국면의 '繞'는 달의 주회 궤도에 올리는 것, 제 2 국면의 '落'은 달의 연착륙, 제 3 국면의 '回'는 달의 토양이나 암석을 가지고 돌아가는 샘플 리턴이다. 1 단계 '창어 1 호'는 2007 년 10 월, '창어 2 호'는 2010 년 10 월 각각 발사돼 예정대로 달의 주회궤도에 투입됐다. '창어 1 호'는 달 상공 200 km, '2 호'는 달 상공 100 km에서 달 관측을 거쳐 '창어 3 호'의 착륙 지점을 정하기 위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2 단계인 창어 3 호는 2013 년 12 월 2 일 발사돼 12 월 14 일 달 연착륙에 성공했다. 달 연착륙은 1976 년 발사된 옛 소비에트 연방의 '루나 24 호' 이후, 중국은 구소련·미국에 이어 달 연착륙을 성공시킨 3 번째 나라가 됐다. 창어 3 호는 달빛 로버 옥토(玉兔)를 방출하는 데 성공했지만 달 둘째 날 밤 지구에서는 약 한 달 반 뒤인 2014 년 1 월 24 일 주행이 불가능해졌다. 원인은 300 도에 이르는 밤낮의 기온차를 견디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창어 4 호는 2018 년 12 월 8 일 쓰촨성 西昌위성발사센터에서 창정 3 호 B 로켓으로 발사돼 2019 년 1 월 3 일 달 남극에 가까운 에이트켄 분지에 성공적으로 연착륙했다. 방출된 달 표면 로버 '옥토 2 호'는, 2020 년 3 월말 현재, 달면에서의 탐사를 계속하고 있어, 주행 거리는 400 미터를 넘었다. 2019 년 12 월 12 일에는 구소련의 달 표면로버 르노호트 1 호가 갖고 있던 달의 최장 활동기록 321 일을 49 년 만에 갈아 치웠다. 달에서는 '낮'과'밤'이 약 14 일 주기로 반복된다.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긴 밤동안 옥토 2 호는 가만히 몸을 숨기고 있다. 달은 항상 얼굴을 지구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구에서 달의 뒷면을 볼 수 없다. 달이 지구를 도는 공전주기와 달의 자전주기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달 뒷편의 창어 4 호에 명령어를 보내, 지상에서 데이터를 수신하려면, 달과 지구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중계 포인트가 필요하다. '라그랑주 점'으로 불리는 이 포인트에 중국은 '작교'라는 데이터 중계위성을 투입, 달 뒤편과 지구를 통신으로 연결하는 데 성공했다.

지구의 인력, 달의 인력, 그리고 위성의 원심력 등이 조화를 이루는 라그랑주 점은 5 곳이며, '鹊橋'는 지구에서 약 44.6만km, 달에서 6.2만km의 제 2 라그랑주 점에 투입됐다. '작교'는 '하늘의 강'을 사이에 두고 일년에 한 번 칠석날 재회하는 견성과 직녀성을 잇는 다리이다.

#### ■ 혹독한 환경아래의 달표면에서 식물 재배 실험도

창어 4 호에서는 달 표면의 식물 재배 실험이 진행됐다. 달의 표면은 혹독한 환경에 있다. 야간 온도는 영하 190 도, 낮 동안은 100 도 이상으로 온도차는 300 도 가까이 달한다. 또 달 표면에 대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 열방사나 태양풍에 노출되기 쉬워 날아다니는 방사선이나 입자가 많다.

재배 실험에는 알루미늄 합금제의 밀봉 용기가 사용되어 광합성의 근원이 되는 태양광은 광섬유로 용기에 넣어졌다. 감자, 목화, 흰견냉이, 유채 등의 씨앗이 물, 영양액, 산소, 누에알, 날파리알, 효모균과 함께 용기에 담겼다. 미니 생태권이다. 착륙 12 일 뒤 중국 정부는 "목화 발아가 확인됐다"고 발표했다지만 이들 만에 말라 죽었다. 달에서 발아된 목화, 벌써 시들었다(CNN), 면화는 하루아침에 시들었다(뉴스위크) 등 언론의 평가는 혹독했지만 감자는 식량, 유채, 누에와 목화는 의류 원료가 되는 등 월면기지 건설을 위한 주도면밀한 실험이었다.

3 단계인 창어 5 호에서는 달의 토양 샘플을 가져올 예정이다. 탐사차는 달 표면에 내려서 달 표면을 약 2m 깊이까지 파고 토양 샘플을 채집한다. 착륙용 카메라, 광학 카메라, 무기분광기, 토양가스 분석기, 토양성분 분석기, 온도 계측기, 기계식 드릴 등이 실릴 예정이다. 샘플리턴은 연착륙에 비해 훨씬 난이도가 높다. 토양성분 분석을 통해 달 표면의 식물 재배가 가능한지, 또 레고리스라고 불리는 달 표면의 물질이 자원으로 이용 가능한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창어 5 호' 발사는 2020 년으로 예정돼 있다. 중국은 달 명명권도 행사했다. 창어 4 호가 착륙한 지점은 천하기지로 명명됐고, 국제천문학연합(IAU)도 이를 승인했다. 중국은 이미 창어 3 호가 착륙한 지점이나 옥토(玉兔)가 주파한 경로를 '廣韓宮' '紫微' '天市' 등으로 명명했고, 월면에서 중국 이름이 붙은 지점은 27 곳이 됐다.

#### ■ 10년 내 달 남극에 연구기지 건설도

우주조약은 달을 포함한 천체에 대해 어떤 나라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명명권 행사가 미국의 신경을 건드린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은 2017 년 베이징항공항천대학교에 달 표면기지를 본뜬 '생명보장 인공 밀폐 생태시스템 실험장치'인 '月宮 1 호'를 건립하고 8 명이 최장 200 일간 밀폐공간 내에서 식물을 재배하며 생활하는 실험을 했다.

월궁 1 호는 종합동과 2개동의 식물동으로 구성되며 종합동은 거주공간, 작업공간, 화장실, 폐기물처리시설 등이 있다. 2 개의 식물동에서는 다양한 식물에 적합한 환경여건을 갖추고 있으며, 달 표면에 우주인이 장기간 생활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은 유인 달 착륙 시기를 명시하고 있지 않지만, 로켓의 개발 상황등에서 2030 년대 전반으로 보여지고 있다. 국가항천국 간부는 "10년 안에 달 남극에 연구기지를 건설하겠다"고 했다.

창어 4 호의 성공에 미국은 충격을 받았다. 1972 년 '아폴로 17 호' 이래 구소련을 포함해 어느 나라도 할 수 없었던 달 탐사 행보에 중국이 도전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아폴로 계획에 달 표면에 발자국을 새긴 우주인(문위커)은 모두 12 명이다. 그 중 생존하고 있는 사람은 아폴로 11 호 버즈 올드린, 15 호 데이비드 스콧, 16 호 찰스 듀크, 17 호 해리슨 슈미트 등 4 명뿐이다. 13 번째 문위커는 미국인일까, 중국인일까, '달'을

둘러싼 미·중 쟁탈전이 시작됐다.

## 5. 신형코로나 제 2 파 보다도 무서운 도쿄의 위기 (동양경제온라인, 2020.6.23)



사진 1) 출처: PIXTA.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되었지만 방심은 금물. 전 이토쥬상사 회장으로 전 중국대사 나와씨는, '지금이야말로 대지진에 대비해야할 것'이라고 경종을 울리지만 그 진의는

긴급사태 선언이 해제되고, 거리에 인파가 돌아오고 있다. 자숙에 피곤해진 사람들에게는, 이쯤에서 '어휴~'라고 한숨 짓고 싶은 상황이다. 하지만 아직 방심은 금물.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의 제 2 파의 이야기가 아니다. 레이와(현재 일본연호)의 일본이 안고 있는 위기는, 신형 바이러스의 위협 이외에도 아직도 많이 있다. 그 중에서도, 전 이토쥬 상사 회장이자 전 중국 대사인 니와 우이치로씨는, '지금이야말로 대지진에 대비해야 한다'라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그 진의를 니와씨가 밝힌다.

■수도 직하지진은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내가 초등학교 시절, 무서운 것의 대표라고 하면 '지진 천둥번개 화재 아버지'였다. 이 중 천둥번개는 현대에는 고층빌딩이나 변전소에 피뢰침 등 지천방지 시설이 갖춰져 있고, 또 천둥번개는 소리만으로 쉽게 피해가 나지 않는 것으로 정체가 판명돼 무서움의 수준은 예전에 비해 크게 낮아졌다. 화재는 거주지나 건축물의 내화성이 높아져 연소延焼, 유소類焼의 위험이 줄어들었으므로 강풍 등 상당한 악조건이 겹치지 않는 한 역시 예전만큼 무섭지는 않다.

아버지에 이르러서는 옛날에는 '가족이 아버지를 무서워했다'가, 지금은 '가족을 아버지가 무서워한다', '를'과 '가'의 위치가 바뀌어, 아버지의 무서움 등 벌써 일본에서 소멸하고 있다. 70 년이 지나도 유독 무서운 것은 지진뿐이다. 지진의 무서움이란, 그 파괴력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는지, 지금도 모르는 그 '불명함'에 그 본질이 있다. 하지만 신형 코로나에서 난리를 치는 요즘 일본에서 지진 위협을 호소하는 사람은 적다.

수도 직하지진은 30년 가까이 전에도 '30년 안에 일어난다'는 말을 듣고 이윽고 30년이 지난다. 이제 언제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 수도 직하 지진은 지금 이곳에 있는 위기이며, 긴급 사태 선언 발표 전야의 상황에 있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지진이란, 아직도 '예측'은 할 수 있어도 '예지'할 수 없는 자연 현상이다. 그러니까 '대지진이 온다!' 라고 하면 어차피 또 말뿐인 험박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기상청의 지진 발생 데이터를 보면, 일본에서는 매월 진도 1 이상의 지진이 백수십회 일어나고 있다.

지진 난다고 경종을 울리는 것은 늑대소년의 장난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 ■ '지진 재해'라는 사회 현상으로 만들지 마라!

나의 저서 <레이와 일본의 큰 문제>에서도 지적했듯이, 일본의 국토와 문화는 지진에 의해 형성되었다. 일본은 어딘가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는 한 지진을 피해 살 수 없다. 일본에서는 지진이 있어서 당연한 것. 천재지변은 잇을 만하면 온다. 실제로 간토 지방에서 봐도 진도 4 급의 지진은 매월 1 회 정도의 빈도로 일어나고 있으며, 신체에 흔들림을 느끼지 않는 진도 3 클래스에서 며칠에 1 회 정도는 일어나고 있다. 그만큼 일상적인 자연현상인 지진이 지진재해가 되는 것은 100년에 5 회라는 것이다.

지진이란 지구의 활동을 원인으로 하는 자연 현상이다. 사람 하나 살지 않는 벌판에서 대지진이 일어난다 해도 지진재해는 일어나지는 않는다. 사람이 밀집한 장소에서 거대한 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지진이 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지진'이라고 하는 자연 현상을 '지진 재해'라고 하는 사회 현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다. 레이와 일본의 앞으로 30년 사이에 대지진은 반드시 온다. 이는 엄포가 아니다. 게다가 지진이 일어날 장소는 매우 인구 밀집 지대인 수도 직하, 도카이 지방에서 시코쿠·칸사이의 난카이 트로프 지역이다.

그럼,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그건 모르겠다. 도쿄대학 지진연구소 지진예지연구센터장인 히라타 나오시 교수는 "과거 100년에 5 번 일어났다는 것은 앞으로 100년에 5 번 정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히라타 교수는 언제, 어디서, 어느 정도의 지진이 일어날지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수도 직하(直下)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30년 동안 70%라는데, 수도권 어딘가에서 또는 간토 남부 지역 어딘가에서 규모 7 정도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 근거는 '100년에 5 회니까, 30년으로 환산하면 0.7 회, 즉 70%가 된다'는 것이란다.

대지진은 100년에 5 회 일어나고 있다고 해도, 20년 간격으로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100년에 다섯 번은 사실이라도 지진이 일어나는 것은 불규칙하다. 그래서 언제 '수도 직하 지진'이 일어날지 예지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향후 30년간 진도 7 정도의 지진이 일어난다는 것은 통계로 보아도 틀림없다. 일본이 지구상 최대의 지진 발생지대에 있는 이상 지진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 ■ 신형 코로나와 거대 지진의 공통점

지진과 이번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는 비슷한 점이 많다. 우선 어느 쪽도 결정적인 부분이 규명되지 않았다. 따라서 만반의 대비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해, 거기에 대해 모두 대비하려면, 거액의 사회자본을 투하하지 않으면 안 되고, 피해를 과소하게 추측하면, 대책 그 자체가 의미를 갖지 않을 것은 이번 COVID-19 대책의 초동을 봐도 분명하다. 모르는 이상 대비할 방법이 없다. 마스크만 해도 이제는 마스크 착용이 일본인으로서의 의무처럼 돼 있고, 마스크를 하지 않고 외출하려는 사람이라면

당장 사회인 실격으로 낙인찍힐 것 같지만 한여름 땀별에 마스크가 얼마나 COVID-19 대책에 효과가 있을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한편, 지진은 그 메카니즘이나, 과거에 얼마나의 지진이, 어디에서 일어났는지는 알고 있어도, 중요한 언제, 어디에서, 어느 정도의 규모의 지진이 일어날지는,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채다. 인류는 달이나 화성에는 로켓을 날리고 있어도, 자신의 발밑인 지구 내부의 것은, 거의 모르는 것이다. 수백 년이나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는 지진조차, 아직도 정체 불명의 것이니, 불과 반년 정도 전에 인간 사회에 나타난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수께끼투성이인 것은 당연하다.

WHO 가 팬데믹을 선언한 후, 세계 각국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상황의 누계(2020 년 6 월 20 일 현재)를 보면, 미국 217 만 2212 명(사망자 11 만 8205 명), 브라질 97 만 8142 명(사망자 4 만 4418 명), 영국 30 만 2473 명(사망자 4 만 2288 명), 독일 18 만 7764 명), 중국 8 만 4970 명(사망자 4645 명), 한국 1 만 2373 명(사망자 280 명), 대만 446 명(사망자 7 명), 일본 1 만 7799 명) 등이다.

일본의 감염자수와 사망자수를 미국, 유럽과 비교하면 분명히 일본은 적다.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까지 동아시아의 각국은 한결같이 적은 것이 COVID-19 의 특징이다. 일본인에게 있어서는 반가운 뉴스지만, 그 원인은 무엇인가라고 하면, 전혀 추론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다.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대만의 사망자수가 7 명이라는 것은 인구 2300 만명이라고 해도 약간 놀랍다. 중국과 대만에서는 2003 년에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가 유행했고, 한국은 2015 년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유행했다. 일본은 모두 국내 유행은 피했다. 대만과 한국은 이때 경험으로 COVID-19 방역체제가 빨랐다는 설도 있다. 반대로, 일본은 과거 2 회의 신형 바이러스 유행을 면했기 때문에, 초동에 지진이 생겼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의 체험이, 사회에 있어서의 면역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럼 지진 재해는 어떠한가? 수도 도쿄는 관동대지진 이후, 직하형의 대지진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지진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실감으로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다. 수도 직하 지진에서는 경험자가 없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귀가 곤란자가 나온 교통 인프라의 다운이나 정전은 경험하고 있어도, 직하형의 대지진으로 물은 어떻게 되는지, 식량은 어떻게 되는지, 전기와 가스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경제는 얼마나의 대미지를 입을지 상상하는 것은 어렵다. 상상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사람은 과잉이거나 과소 반응할 수 있는 법이다. 그래도 우리는 지진에 대해서도,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모르는 대로 사전 대비를 해야 한다.

‘사전의 대비가 중요한 것은, COVID-19 대응과 대지진에의 대비에 공통되는 것’(히라타 교수)이다. 대비의 제 1 은, 우선 지진도 바이러스도 있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지진은 인류 탄생 이전부터 일어나고 있으며 바이러스도 어쩌면 인류보다 일찍이 지구상에 생존했을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과거도 미래도, 신형 코로나뿐만 아니라, 계속 위드 바이러스이며, 또 위드 지진인 것이다. 그 인식에서 대비는 시작된다.

#### ■자연에 대해 더 겸손해야 한다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것이 나타나면 우리는 그것을 신형이라고 이름 짓는다. 하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우리가 몰랐을 뿐이고, 오래전부터 거기 있었던 것이다. 새로 발견했을 뿐이지 새로 등장한 것은 아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구상에서도, 지구 내부에서도, 아주 조금이다. 인간이 알고 있는 것은 지표 상공, 지하, 해저 10 km 미만이고, 지구의 직경으로 보면 겨우 0.07%의 범위이다. 차로 가면 10 분 정도의 거리다.

따라서 지표 상공, 지하, 해저에 대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다. 하물며 지구 밖의 것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편이 정확할 것이다. 우리는 자연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더 겸손해야 한다. 근년, 기업은 ESG(환경·사회·통치)를 경영의 중심에 두기 시작하고 있다. ESG 는 자연에 대해서도, 사회에 대해서도 '겸허'하다는 것이다. 인류는 지금까지 자연에 대해 무턱대고 마구 먹어댔다. 지구상 어디든지 가, 환경을 부수고 자원을 써댔다. 그래서 인간사회와 무관했던 오지에 사는 세균 바이러스까지 자신들에게로 불러들였다.

인과응보, 자신들이 한 일은 반드시 자신들의 몸에 닥친다. 지구의 환경을 파괴해 그 영향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리 없다. 그런 의미에서 지진 역시 우리 지구에 대한 염치없는 행동에 대한 보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거대 지진에 대해 사람은 무지함과 동시에 무력하기도 하다. 이제 하늘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해님께서는 보고 계셔." 우리 할머니는 그렇게 말하시며 나를 타이르셨다. 지진 천둥번개 화재 아버지 중 유일하게 남은 지진 우려. 지진에 대한 두려움은 지금 살아 있는 우리에게 신의 계시일지도 모른다.

## 6. 코가시게아끼古賀茂明'경산성 힘쓰는 자들이 나라를 망친다'

(주간아사히, 2020.6.23)



사진 1) 출처: 주간아사히. 코가시게아끼 / 古賀茂明정책라보 대표. '개혁은 하지만 전쟁은 안한다'포럼 4 제창자. 1955 년, 나가사키 태생. 도쿄대법학부졸. 전경제산업성의 개혁파관료. 산업재생기구집행이사, 내각부심의관등을 거쳐 2011 년 퇴관. 주저로 『일본중추의 붕괴』

코로나사태에 허덕이는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자금을 직접 급부하는 지속화 급부금. 신청으로부터 1 개월 방치 후에 서류 미비 연락만 하는 예가 잇따랐다. 인터넷쇼핑이나 택배와 비교해도 시스템 미비는 분명하다.

최대의 문제는, 급부 사업을 왜인지 이벤트회사 덴츠에 통째로 던진 것. 다카하시 마츠리씨의 과로 자살뿐만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위법 야근의 시정 권고를 받는 꼬리표가 붙은 블랙 기업이다. 덴츠는, 실체가 없는 것, 혹은 떨어지는 것을 화려하게 크고, 훌륭하게 보이게 하는 이벤트회사에 광고꾼이다. 빨리 약자에게 돈을 보내려는 재미없는 일의 대척점에 있다. 게다가 덴츠는, 패밀리·친구 기업에 재위탁, 재재위탁, 재재위탁.....어디서 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경제 산업성조차 모른다. 시대에 뒤떨어진 쇼와 시대의 기업 모습을 훌륭하게 드러냈다. 해외에서는, 미 IT 대기업의 협력으로 새로운 시스템을 자꾸자꾸 개발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입찰에서는, 경합한 외자계 컨설팅 회사 쪽이 평가가 높고 가격도 싸는데, 왜인지 덴츠계의 단체가 낙찰. 이 터널 단체를 통해서 사업은 덴츠에 거의 투매이기 때문에, '정말 수상하다'라고 누구나가 생각한다.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사실이 폭로됐다. 급부금 사업의 책임자인 마에다 야스히로 중소기업청 장관이 나카누키 환매 단체의 이사로 전 덴츠 사원의 히라카와 켄지씨와 이전부터 친교가 있었다. 마에다씨는, 이전, 미국 텍사스주에서 행해진 이벤트에 출장했을 때, '마에다 하우스'라고 이름을 붙여 빌릴 수 있던 주택에서, 기업 관계자들과 밤마다 파티를 열고 있어 거기에 히라카와씨가 참가하고 있던 것도 노출. 국민에게, '부디 나를 의심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행위이지만, 카지야마 히로시 경제산업상은 '문제없다'라고 강변했다. 그러나 국가공무원법 제 82 조 3 항에는 장관은 직원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답지 않은 비행이 있을 경우'는 징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다만, 이것은 마에다씨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마에다씨를 아는 사람은 모두 이렇게 말한다.'마에다씨라면, 있을 수 있지요'라고. 그는 건들대는 남자로 유명하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럼 왜 그가 출세하는가? 그것은 경제 산업성이 이런 남자 없이는 살아 갈 수 없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경제산업성의 산업정책은 계속 실패했다. 일본의 산업은 세계에 뒤쳐져 일본 주식회사의 선도역이었던 경제산업성에는 아무것도 기대되지 않게 되었다. 실직 직전인 경제산업성은 매년 새로운 사업을 벌여 알맹이가 없어도 어떻게든 훌륭하게 보여 예산을 확보한다. 접대 규격 인증, 프리미엄 프라이데이 등. 쿨 재팬에서는 거액 펀드를 만들었지만 거의 전멸. 그런데도 매년 신사업으로 허덕허덕. 이것을 지지하는 알맹이 없는 남자들은 지금 경제산업성의 뼈대 골격이다.

그래서 이런 남자들은 출세한다. 그리고, 이들을 지지하는 것이 이벤트회사 덴츠. 기획 단계로부터 이들에게 신사업을 주입해, 그 사업을 하청받는다. 이들은 그 편이 귀찮지도 않고 은혜도 값으니까 덴츠를 중용한다. 아베 총리와 경제산업성의 관계는 이들과 덴츠의 관계와 거의 닮은꼴이다. 알맹이는 없어도 하는 느끼만으로 국민을 속이는 퍼포먼스 내각. 재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는 것은 재무부에서 무리다. 결국 경제 산업성 내각이라고 해도 날라리의 관청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아베 총리나 아키에 부인도 모두 날나리.

덴츠, 경제산업성, 아베 정권이라는 3 날나리에 나라를 맡긴 국민의 비극은 언제 끝날까. 주간 아사히  
2020년 7월 3일호

# “코로나19 대응” 중국 중앙정부 정책

## <방역>

### 1.교육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업무 지도팀 사무실에서 방역 상시화에 학교 체육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지도 의견 (2020.5.20)

교체에청함[2020]12 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교육청(교육위원회), 신장 생산 건설병단 교육국, 부속 각 고등 학교, 부성 합조 건설 각 고등학교:

현재 일부 지역의 초등, 중등, 고등 학교가 이어서 복학하고 있다. <국무원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연합예방통제체제가 방역 상시화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지도 의견> (국발명전[2020]14 호) 정신을 관철하여 실행에 옮기기 위하여 방역 상시화에 학교 체육 업무 잘 할 수 있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한다.

1. 방역 상시화에 따른 학교 체육 업무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한다. 신세대 학교 체육 업무의 중요한 사명과 목표는 학생들이 체육 단련에서 즐거움을 누리고, 체질을 강화하고, 인격을 튼튼히 하고, 의지를 단련하며, 덕지체미로 하나 빠짐없이 전면적으로 발전하는 사회주의 건설자와 후계자를 양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방역 상시화에 학교 체육사업을 활발하고 질서있게 전개하여 건강 제일의 이념을 수립하고 학생들의 체질 증진, 면역력 향상, 마음의 불안 완화, 체육과 건강교육의 깊이 있는 통합, 학생들의 좋은 체육 위생 습관 양성, 학생의 안전 보장, 교육 시스템의 안전과 안정을 유지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각지의 각 학교는 체육이 전염병에 맞서 싸우는 중요한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여 방역 상시화에 학교 체육 업무를 확실하게 잘 해야 한다.

2. 학교 체육 사업이 직면하고 있는 위험을 종합적으로 판정한다. 비교적 오랜 시간의 홈스쿨링을 거쳐 학생의 체질, 체력과 운동 기능이 다소 떨어졌을 것이다. 그리고 여름이 되어 기온이 점점 올라가며 복학 학교의 체육 업무 전개에 위험을 초래하고 학생들의 체육활동 참가에 영향과 제한을 줄 것이다. 각 지역은 방역 형세의 변화를 각별히 중시하여 학교가 체육 업무 실시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판단을 통해 학생이 체육활동 참여에 대한 절박한 심정과 간절한 소망을 헤아리고 수업내용 설정, 교학계획 조정, 수업조직 변화, 장소 시설 이용, 시시착봉 안전활동, 비상 안전 방비 등 여러 방면에서 확실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업무 방안을 만들고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체육 교육 교학 활동을 설계하고 배치한다.

3.방역과 체육교육 활동을 총괄적으로 추진한다. 현지 방역 총체적 요구에 따라 교사와 학생을 위해 체육 활동에 참가할 수 있는 필요한 방역 물자를 배치하고 수업 전과 수업 후에 경기장, 기자재 시설 등을 적절히 소독하고 운동기구를 합리적으로 배치하여 교차사용을 피한다. 교사와 학생의 체육 활동은 실외 또는 통풍이 잘 되고 있는 경기장에서 진행해야 하며 보통 1.5m 간격을 유지하거나 간격을 최대화하여 접촉을 최소화한다. N95 마스크를 착용하고 체육활동을 할 수 없다. 저위험 지역 학생은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체육시간 전에 교사는 학생들을 이끌고 워밍업을 충분히 해야 하며, 수업 중에는 학생들의 기체와 기분 변화에 관심을 가지며, 운동 강도와 운동 밀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학생들의 훈련 동향에 주의하며, 무리지어 모여드는 운동을 방지하고, 수업 후에 제때에 휴식하고 정돈할 것을 학생들에게 일깨워 주어야 한다.

4.체육 수업 내용과 수업 방식과 방법을 최적화한다. 개학을 연기하는 동안 학생들이 집에서 배운 체육 상황을 철저히 파악해야 한다. 평가의 기초 위에 수업 시작점을 확정하여 홈스쿨링과 복학후 체육수업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체육 수업 내용은 학생들의 실제 교과계획에 따라 조정되어야 하며, 복학 초기에는 수업 표준에 규정된 운동 강도 및 밀도 요구사항을 적당히 낮추고 중간 또는 중상등 운동 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비신체접촉인 체력연습과 심폐기능 발달 위주의 1 인용 프로그램, 예를 들어 줄넘기, 제기차기, 조깅, 무술, 헬스체조 등을 많이 마련하고, 학생의 체력 회복 상황에 따라 학습 강도와 난이도를 점차적으로 높여야 한다. 조건이 있는 학교는 학급이나 학생을 위해 "일반 일안" "일생 일책"의 교과 계획을 세울 수 있다.

5. 매일 한 시간씩 운동하는 요구를 확실히 실천해야 한다. 교사와 학생의 안전과 신체 건강을 확보하는 전제하에, 학교는 체육 수업을 완비하고 충족하게 개설해야 한다. 조건이 갖추지 못한 학교는, 시간을 나누어서 체육 수업을 잘 갖추어야 한다. 쉬는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학생들이 실외에 나가 개인 체육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적게 먹고 끼를 많이 챙기는"식의 체육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매일 한 시간씩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방역 요구에 따라 체조시간의 형식과 내용을 조정하고 공간이 부족한 학교는 시간별, 구역별, 순서별에 걸쳐 체조시간 활동을 진행하여 1 인의 자율적인 연습을 격려해야 한다. 복학 초기에는 거리 통일, 속도 통일 집단 달리기를 조직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 관련된 요구에 따라 학교는 대형 이벤트와 운동회를 일시 중단하고 온라인 체육 경기와 운동회를 권장한다.

6. 혁신적인 형식으로 학교 건강 교육 수업을 강화한다. 학교는 건강 교육 교과와 실천을 강화하고, 건강 교육 과학 보급 업무를 잘 하고 학생들을 이끌어 건강 교육 지식을 장악하고 건강 최고의 이념을 수립하고 건강한 생활 방식을 양성한다. 여러 체육 교사들은 건강 교육의 의식을 강화하고, 자신의 학습을 강화하며, 새로운 건강 교육의 형식을 혁신하며, 다양한 채널로 건강의 이념과 지식을 전파하여 학생들이 건강한 습관을 갖도록 촉진한다.

7. 각종 체육시험 방안을 적당하게 조정한다. 각 지역은 실제, 과학에 근거하여 연구 개발하고 적시에 중학교 진학 체육 시험, 체육 교 전공 수능 운동 기능 테스트, 운동훈련학과와 무술민족전통체육 전공 단수고사, 일반 대학교 고수준 운동팀 모집 등 업무 방안을 발표해야 한다. 관련 체육 시험 내용을 적절히 조정하고 시험장소를 정성껏 설계하고 조직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질서 있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학교는 체육시험을 치르는 학생과 학교 운동 대표팀을 위한 별도의 운동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어 학생들의 체력을 증강하고 학생운동 수준을 높일 수 있다.

8. 가정은 학교와 협동하여 좋은 체육 학습 환경을 조성한다. 학교, 교사는 학부모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체육 숙제를 배치하여 학부모를 동원하여 학생의 체육 단련을 지도하고 감독하여 학생들이 방역 상시화에서 적극적으로 체육 단련에 참가하도록 유도한다. 학부모는 학생들의 신체와 심리 건강을 밀접히 주시하고 제때에 학교, 교사한테 학생들이 집에서의 체육 단련 상황, 체질 건강 변화 상황 등을 피드백하여 학생들을 위해 가정과 학교가 협동하는 좋은 체육 학습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한다.

9. 조직의 지도자 주체의 책임을 강화시킨다. 각지의 교육 부문은 시종 교사와 학생들의 생명 안전과 신체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여, 학교의 방역 주체적 책임을 강화하여 제때에 현지와 본교의 체육복합 업무 방안을 연구하고 마련하여 학교의 체육수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도, 독촉, 점검하여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각지 각학교들은 방역, 건강 교육, 안전 교육과 체육 교육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응급 대책을 마련하고 응급 훈련을 강화하며 학교 체육 업무를 적극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교육부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업무 지도팀 사무실

## <금융>

### 1.2020 년 항역특별국채(3 기) 발행사업과 관련한 통지 (2020.6.16)

배반고(财办库) [2020] 112 호

2018-2020 년 기장식 국채수취단원, 중앙국채등기결제유한책임공사, 중국증권등기결제유한책임공사, 중국외환거래센터, 상하이증권거래소, 선전증권거래소:

재정부는 재정자금을 조성해 방역과 경제사회 발전을 일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0 년 항역특별국채(3 기)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번 호의 국채 발행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첫째, 발행 조건

(1) 품종과 수량. 당기 국채는 10 년만기 고정금리부이자, 경쟁입찰 총액은 700 억 위안이며, 갑종 멤버 추가입찰은 하지 않는다.

(2) 일정 스케줄. 2020 년 6 월 23 일 입찰, 6 월 24 일 이자 계산, 입찰 종료부터 6 월 24 일까지 소매를 진행하고, 6 월 30 일부터 장내거래를 하게 한다.

(3) 환매 배치. 당기 국채 이자는 반기별로 지급하며, 매년 6 월 24 일, 12 월 24 일(휴일 순연, 하동)에 이자를 지급하며, 2030 년 6 월 24 일에 원금을 상환하고 마지막 이자를 지급한다.

(4) 경쟁적 입찰 시간. 2020 년 6 월 23 일 오전 10:35~11:35 이다.

(5) 발행 수수료. 액면가의 0.1%를 인수한다.

둘째, 경쟁적 입찰

(1) 입찰방식. 수정된 다중 가격(즉, 혼합식) 입찰방식을 채택하고, 표시된 것은 이자율이다.

(2) 입찰 한계. 입찰에서의 제거, 낙찰에서의 제거와 수주단 멤버당 입찰공표의 차이가 각각 100 개, 20 개, 35 개이다.

셋째, 발행금 납부

낙찰된 위탁 판매 멤버들은 2020 년 6 월 24 일 이전(6 월 24 일 포함)까지 발행대금을 재정부 지정계좌에 납부한다. 납부 날짜는 재무부 지정 계좌에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수취인명: 중화인민공화국 재무부

개호은행: 국가금고총고      계정번호: 270—207703—1

지급은행 번호: 011100099992

넷째, 기타

상술한 관련 규정 이외에, 당기의 국채 입찰 작업은 '2020 년기 기장식 국채 입찰 발행 규칙'에 따라 수행하게 한다.

재무부 판공청

## <의료>

# 1.국가 의료 보장국 사무실은 코로나 19 의 검사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관련 업무 수행에 관한 통지 (2020.6.16)

의료 보장국 사무실 [2020]30 호

각 성, 자치구, 직할시 및 신장생산건설병단 의료 보장국:

중앙 코로나 19 대응 업무 영도소조 회의 배치와 “코로나 19 예방 합동 통제 체제의 정착을 위한 코로나 19 상시화 방지 사업에 관한 국무원 지도의견”을 관철하기위해, 코로나 19 의 검사 능력을 더 높여, 높은 측정값을 낮추도록 순차적으로 유도하게, ‘검사를 받아 야한 거나 검사를 받고 싶거나 다 한다’라는 것이 실현을 지지하고, 코로나 19 의 상시화 방지와 복업, 복산, 복학, 복시 조력하며, 코로나 19 검사 의 온라인 조달, 가격 관리와 의보 지급 업무에 관한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첫째, 테스트제 조달 경로를 원활히 한다

(1) 공개 온라인 조달을 보편적으로 전개한다. 각 지역의 의약 집중 조달 기관은 코로나 19 의 검사 테스트제 온라인 작업을 잘 하게, 성급 집중 조달 플랫폼 사이에 정보 공유와 가격 연동 메커니즘을 보완한다. 공립 의료 기관은 소재지의 성급 의약품 집중 조달 플랫폼에서 코로나 19 검사 테스트제를 조달해야 한다.

(2) 집중 조달을 장려한다. 성급과 지역 의보 담당 부서가 적극적으로 코로나 19 검사 테스트제 집중 조달을 장려한다. 품질이 높고, 생산능력이 비교적 강하고, 공급이 안정적이고, 성실성이 좋은 기업을 선택하며, 경쟁을 통해 가격이 적정 수준에 복귀를 촉진한다. 코로나 19 검사 테스트제 집중 조달은 원칙적으로 여러 개 기업 중에서 선택하여 공급 안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대규모의 검사 수요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집중적인 조달을 실시해야 한다. 조건 있는 지역에서 집중적인 조달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둘째, 검사항목 가격정책을 보완한다

(1) 검사항목은 ‘병치에 따라 항목을 검사’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병원체 구분이나 조작 절차 따라 코로나 19 검사항목의 가격을 신설하지 않는다. A 형 전염이나 법에 따라 A 형 전염 관련 검사에 대해 위험부담이 크고 방호 요구가 높으면, 통행가격항목을 기초로 통일된 가수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 공립 의료 기관에서는 코로나 19 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면, 기존의 요금 정책을 직접 집행할 수 있고 신규 가격 항목을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2) 임시 프로젝트 설치하려면 "기술 소모 분리"를 구현해야 한다. 공립 의료 기구의 신관 바이러스 검사의 요금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임시 프로젝트를 따로 두어, 각지에서 "기소 분리" 방식에 따라 항목을 세울 것을 장려한다. 핵산, 항체 검사의 시료채취, 처리, 표시, 회수, 출구진단결과 등의 소모품은 통합하여 의료서비스 항목으로 가격을 정해야 한다. 체외 진단 테스트 키트는 의료 서비스 가격 항목 이외 "영 가격 차"에 따라 요금을 받아야 한다.

셋째, 의보 지급 업무를 보완한다.

코로나 19의 방제 작업의 필요성, 본 지역 의보기금 지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차에 따라 신관 바이러스에 대한 핵산항체검사 항목과 관련 소모품을 성급의보 진료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각 지역의 의보 부서는 이 업무를 매우 중시해야 하며, 업무 중에 중대한 문제와 상황에 부닥치면, 즉시 국가 의료 보장국에 보고해야 한다.

국가 의료 보장국 사무실

### <취업>

## 1.교육부, 전국 고교-호북고 2기 취업 창업 “일방일(一帮一)” 시행 (2020.5.18)

졸업생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후베이 고교 졸업생의 취업창업을 확실하게 돕기 위해 교육부는 8일 전국 고교와 후베이 고교 졸업생의 취업창업 1차 일방일(一帮一)을 실시하고, 48개 고교가 모두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일방일 캠페인이 시작된 이래, 첫 번째 고등학교는 800회에 가까운 공동 취업 업무 원격 회의를 개최하였으며, 연합 온라인 채용 행사 223회, 일자리 정보 공유 50만여 개, 채용 기관 유치 5만개를 잇달아 개최하였다. 지원 고교 졸업생 7만 5000여 명이 이력서를 냈고, 현재 4000여 명을 직접 수혜 계약해 후베이 고교 졸업생들의 취업을 촉진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교육부는 최근 후베이 지역 120여 개 고교 졸업생의 취업창업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지원을 촉구하는 ‘일방일’에 돌입했다.

학교 설립 유형, 취업 업무 특성과 지원 고교의 수요에 따라, 2차로 76대 고등학교에 대한 지원 활동을 확정하였으며 지원 고교는 중앙부위 직속 고교 15곳(교육부 직속 고교 11곳 포함), 성은 일반고 15곳, 전국 시범고급고교 32곳과 중견고교 14곳(보통고교 7곳 포함), 후베이 지원 고교는 29개 성(省) 본과, 5개 전국 시범고, 중견고(骨高.), 일반고 41개, 성인교육고(일반전문대) 1개다. 지원활동 시기는 2020년 5월부터 9월까지로 정하고, 방역태세에 따라 적기 조정된다. 지원 고교와 지원 고교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원 업무 목표와 구체적인 조치를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일자리 정보 공유, 취업 채널 공동개척, 취업지도 공동강화, 양질의 교육자원 공동활용, 창업실천활동 공동실천활동, 관리수준 공동향상 등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며 졸업생의 취업을 촉진한다. 해당 성(教育)급 교육행정 부처는 지도를 강화해 ‘일편단적’ 행동의 실시를 위한 정책 지원과 편의를 제공한다.

현재 2차 76개 고교는 모두 매칭을 마치고 지원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교육부는 주기적으로 지원 보조 활동 실시 효과에 대한 감독검사를 실시해 지원 보조 활동의 경험 등을 실시간으로 총결산하고, 효과가 있는 맞춤형 방법을 홍보한다.

## 2.인력자원 사회보장부: 기업의 안정적 일자리 확충하는 정책을 확대 정착시키고 업무로 훈련을 대신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전개 (2020.5.22)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에서 안정적 일자리 확충하는 특별 항목 지원계획에 관한 통지> (인사부발[2020]30호, 아래 30호 문서로 약칭) 정신을 관철하기 위하여, 기업의 안정적 일자리 확충과 고용 확대, 고용안정과 생활 보장을 더욱 촉진하기 위하여 5월 20일에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무청에서

<업무로 훈련을 대신하는 것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통지> (아래 <통지>로 약칭)를 인쇄하여 발표하였다. <통지>에서는 업무로 훈련을 대신하는 관련 정책과 업무를 잘 하는 구체적인 요구를 명확하였다.

<통지>는 30 호 문건의 업무로 훈련을 대신하는 정책을 관철시켜 새로운 노동자 흡수를 확대하고 어려운 기업에 대해 지원을 늘이고 중점 업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각지가 업무로 훈련을 대신하는 것을 전개하라고 요구하였고 업무로 훈련을 대신하는 것을 금년도의 직업 기능 향상 행동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하여 조직 지도와 실시 추진을 강화하도록 요구하였다. 중소기업 취업 곤자를 흡수하여 업무로 훈련 대신을 전개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전염병 발생의 영향으로 생산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업무가 중단된 중소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여 업무로 훈련 대신을 전개하고 대외무역, 숙박음식, 문화관광, 교통운수, 도소매업 등 업종을 지원하여 업무로 훈련 대신을 전개하여 올해 직업 기능 향상 행동의 각 목표 임무의 완성을 확보한다.

<통지>에서 각 지역은 현지 업무의 실재를 결합하여 업무로 훈련 대신의 각 정책을 세분화하고 직업 기능 향상 행동 정책 체계를 혁신하고 보완하며 관리 서비스 프로세스와 보조금 표준을 명확해야 할 것을 요구했다. 6월 15일 이전에 성(구, 시) 인사부는 재정 부와 함께 보조금 표준 제정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동시에 업무로 훈련 대신 인원 수, 지원업체 수와 자금지출 수 등 정보 실시 상황을 직업 기능 향상 행동 월정계정 통계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통지>에 따르면 각 지역은 취급 서비스를 최적화하고 업무로 훈련을 대신하는 각종 서비스 관리 업무를 착실하게 하고 증명서를 신청하는 것을 간소화하며 '함께 처리하다'와 '빠르게 처리하다'를 실시하며 보조금 온라인 신청 방법을 만들어 심사발급의 효율을 높이고, "비대면" 서비스를 보급하고, 보조금 접수 심사발급의 전 과정을 온라인 전개하기 위해 노력한다. 각 지역은 직업 기능 향상 행동 특별계정 자금의 감독 체제를 강화하고, 감독 검사를 강화하며, 규칙을 어기고 사용, 자금을 사취하는 것은 법과 규칙에 따라 엄벌해야 한다. 아울러 각 지역이 실제와 결합하여 조직과 실시하고 현지 당위원회, 정부의 방역 의사결정에 따라 오프라인 교육, 기능등급 인정과 기능경기 등 각종 업무를 적시에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 KIC 중국 NEWS

## 1. KIC 중국, 2020 포스트 코로나 한중대학생 온라인 취업 설명회 성황리 개최 (2020.6.28)

[KIC 연구원 황소정]



사진 1) 출처: KIC 중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KIC 중국(센터장 이상운) 은 2020년 6월 28일 오후, 2020 포스트 코로나 한중대학생 온라인 취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본 행사는 KIC 중국이 주최하고, 북경한국총유학생회, 북경한인청년창업연구회(KBSA) 기관이 협력했다. 그동안의 취업설명회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온라인으로 선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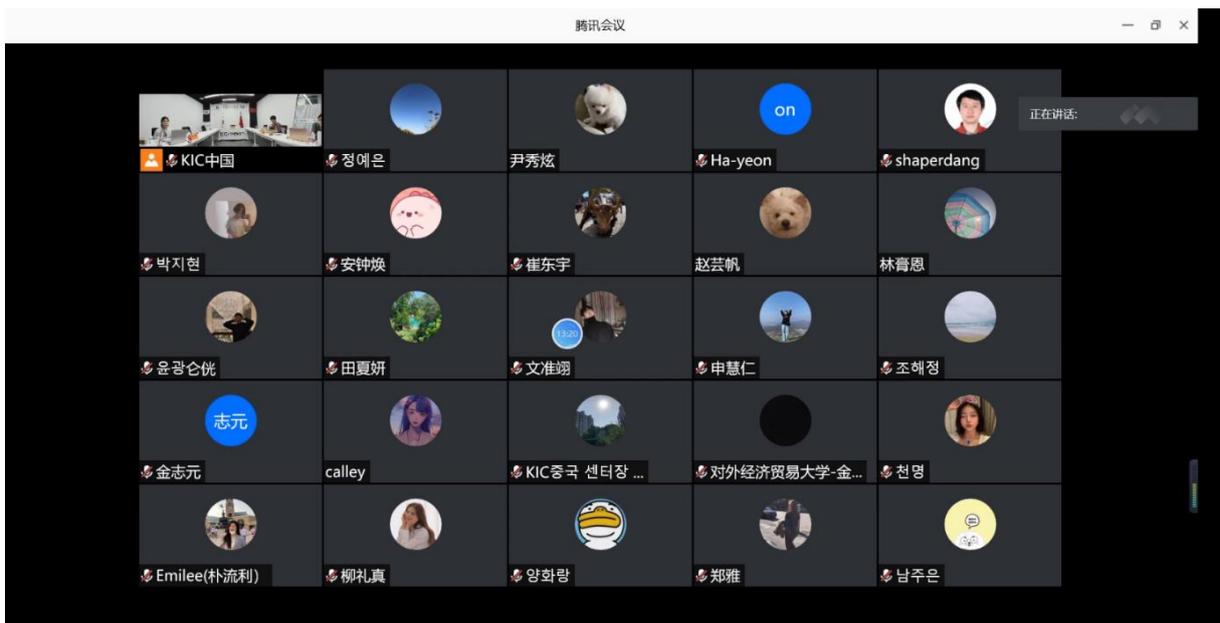


사진 2) 출처: KIC 중국. 2020 포스트 코로나 한중대학생 온라인 취업 설명회 현장

온라인임에도 한국과 중국의 대기업인 CJ, SK, 텐센트(腾讯)가 참여하는 만큼 한중 유학생들의 관심도는 매우 뜨거웠으며 당일 약 140 여명의 참석자가 함께했다.

본 행사는 코로나 19 로 인한 전 세계적인 경제난과 취업난이 찾아오는 환경하에 대학생들의 최대 관심사인 취업과 진로 문제에 대해 소통하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베이징 현지에 있는 한국 대기업과 우수한 인적 자원을 동원해 한중 대학생들에게 포스트 코로나 취업시장 동향 및 대학생 취업 지원을 목표로 했다.



사진 3) 출처: KIC 중국. KIC 중국 이상운 센터장의 축사

이 날, KIC 중국 이상운 센터장과 북경한국총유학생회, 북경한인청년창업연구회(KBSA) 각 회장이 축사를 시작으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KIC 중국 센터장 이상운은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참석자들을 보며 취업과 진로를 향한 끊임없는 열정이 느껴진다”며 “이번 강의를 통해 앞으로의 미래 계획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한중 유학생들을 응원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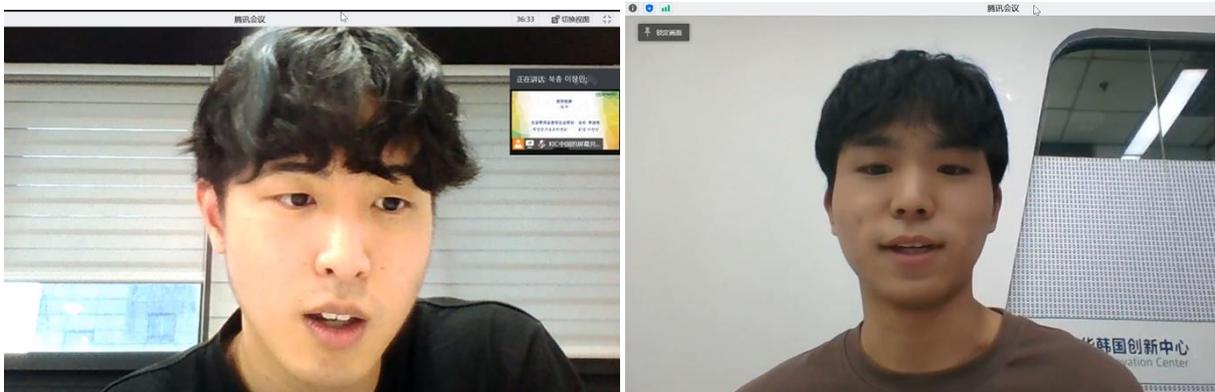


사진 4) 출처: KIC 중국, 북경한국총유학생회 이창민 회장, 북경한인청년창업연구회(KBSA) 문준익 회장 축사

더불어 북경한국총유학생회 이창민 회장은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많은 유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주어진 시간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중 하나가 행동력이다.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을 배워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북경한인청년창업연구회(KBSA) 문준익 회장은 “자신이 가장 잘하는 자신만의 길을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본인이 남들의 기준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의 길을 가야한다.”며 축하 순서를 마무리했다.

이 날 취업설명회에서는 CJ 그룹 중국본사 인사팀 한승훈 부장, 텐센트(腾讯) 생태협력부 당진(党金) 고급경리, SK 차이나 HR 팀 최동우 부장의 취업 강연으로 이루어졌다. 온라인 취업설명회라는 특수 상황에서도 강연자들의 열정은 막을 수 없었다. 포스트 코로나시대에 맞설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과 취업 및 창업에 관하여 열정적인 강연을 펼쳤다.



사진 5) 출처: KIC 중국. CJ 그룹 중국본사 인사팀 한승훈 부장의 “2020 년 CJ 취업계획 및 중국내 취업동향” 강연

이 날, CJ 그룹 중국본사 인사팀 한승훈 부장은 “2020 년 CJ 취업계획 및 중국내 취업동향”을 주제로 강연의 막을 올렸다. “2020 년 코로나로 인해 CJ 채용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과거는 ‘진산인스(金三银四)’로 춘절을 전후로 구직 활동이 활발, 취업의 황금기였다. 하지만 현재 상당수 회사들이 대규모 공채보다 수시 채용으로 전환하고 있으며 중국에서도 실질적인 변화가 생겨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는 오프라인 위주였다면 현재는 온라인을 베이스로 한 직무가 발전할 것이다” 고 예상했다.” 또한 마련된 실시간 질의 응답시간을 통해 유학생들이 평소 궁금했던 취업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며 마무리 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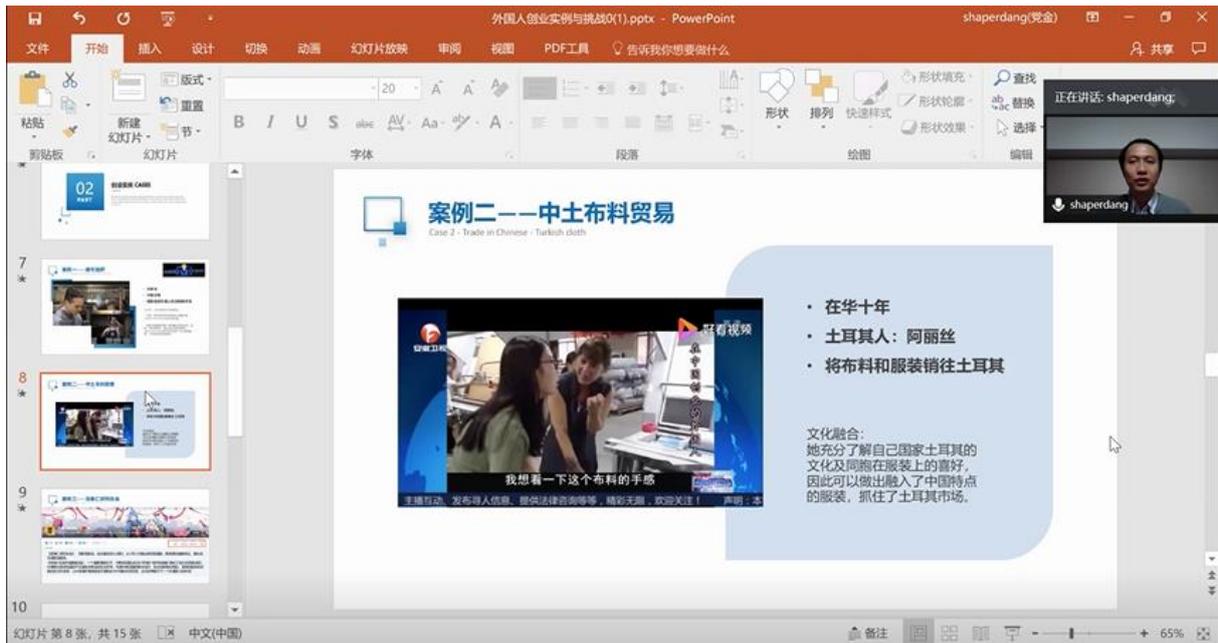


사진 6) 출처: KIC 중국. 텐센트(腾讯) 생태협력부 당진(党金) 고급경리의 대학생 창업 사례 및 기회와 도전"강연

두번째 강연자로, 텐센트(腾讯) 생태협력부 당진(党金) 부장은 "대학생 창업 사례 및 기회와 도전"을 주제로 강연을 시작했다. 당진 부장은, "현재 코로나 19 사태로 인하여 기업의 디지털 변신이 대세다. 의료 건강, 레크리에이션 산업, 교육도 유망하며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업계 발전의 기회를 맞이하였다. 현재 생방송 형태의 방송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많은 분야의 영역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된 만큼 온라인 교육 '클라우드 시대', 인터넷 의료의 발전이 급속히 진행중이다. 이를 바탕으로 창업 시 데이터를 기본으로 한 시장 연구는 기본이며 적극적인 실행력과 융통성 있는 사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강의가 끝난 후에도 유일한 창업 관련 강연인만큼 창업에 관심있는 한중 대학생들의 질의응답이 끊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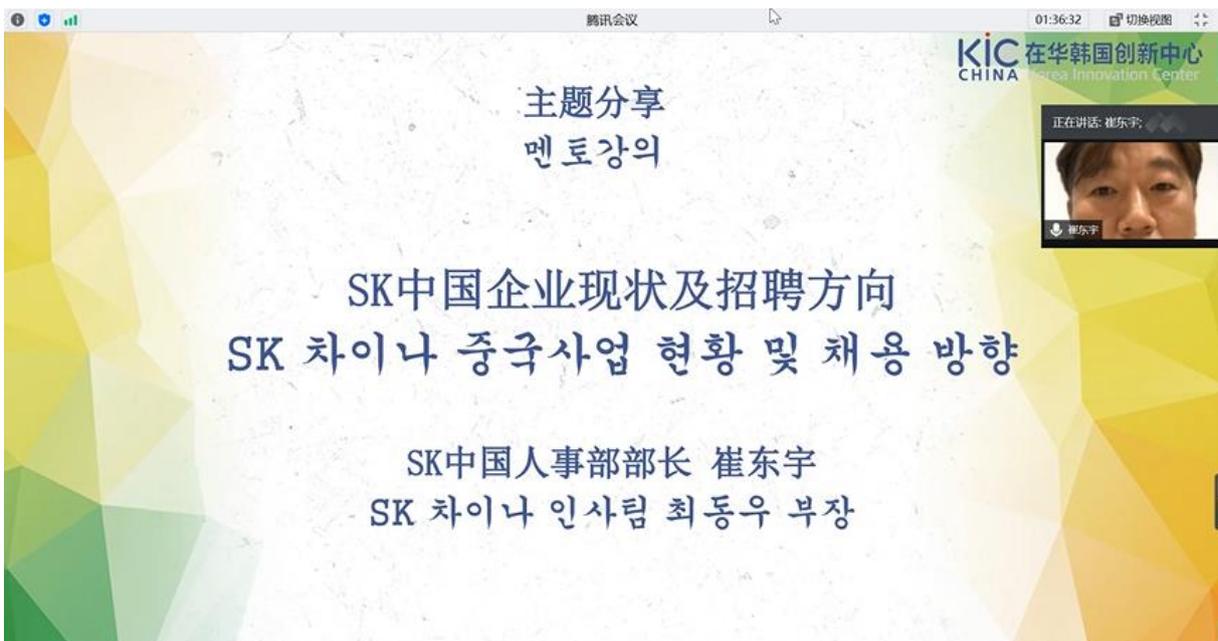


사진 7) 출처: KIC 중국. SK 차이나 HR 팀 최동우 부장의 "SK 차이나 중국사업 현황 및 채용 방향" 강연

마지막 강연자로 SK 차이나 HR 팀 최동우 부장이 "SK 차이나 중국사업 현황 및 채용 방향"을 주제로 강연에 나섰다. 최동우 부장은 "포스트 코로나 관하여 한국이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우수한 대응으로 인해 K-바이오, K-뷰티 등 언택트 관련 산업이 많이 주목받았다. 또한 SK 는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논의하고 합의하는 것을 중시하며 현재 IT 관련 사업이 각광을 받고 있다"로 강조했다. 또한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정된 시간보다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학생들의 취업 관련 질문에 대하여 열정적으로 대답해주는 면모를 보여주었다.



사진 8) 출처: KIC 중국. KIC 중국 "2020 포스트 코로나 한중대학생 온라인 취업 설명회" 현장

이번 대회를 주최한 KIC 중국 이상운 센터장은 "세 연사의 열정적인 강연으로 인하여 코로나 19 이후 취업 및 창업 방향에 더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기이라며 다음에 더욱 유익한 설명회로 찾아 뵙겠다"고 강조하며 본 행사를 마무리 지었다.